

성과가 아니라 인격을 중시하십시오

모든 리더는 하나님의 성화시키는 은혜의 대상

우선순위

모든 리더십 커뮤니티가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사역 이야말로 수많은 경쟁적이고 상충되는 동기의 교차점이라는 사실입니다. 교회와 사역 관련 리더십 커뮤니티에 속한 모든 리더가 “내 마음은 순수합니다. 그리스도와 그의 은혜의 복음을 향한 나의 헌신에 위협을 주는 그 어떤 동기에도 나는 유혹받을 수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아주 훌륭한 일입니다. 문제는 모든 리더의 마음이 성화의 은혜로 정화되고 있지만, 아직 완전히 순수한 건 아니고 따라서 유혹에서 온전히 벗어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비노스 라마찬드라는 Gods That Fail(실패한 신들)에서 신앙 공동체에서 가장 강력하고 매력적인 우상은 쉽게 기독교 안에서 정당화가 가능한 우상이라고 지적합니다. 그의 지적은 사역 리더십에 몸을 담은 모두를 향한 날카로운 경고입니다. 우리가 길을 잃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리더가 사역이라는 구실로 하나님의 대사라는 부름 이외의 어떤가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온통 마음이 사로잡혔는데도, 리더는 그것을 추구하는 내내 여전히 사역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사역이 가져다준 지위, 권력, 권위, 신뢰를 사용하여 그러한 사역을 얻어냅니다. 리더십 커뮤니티는 사역이 온갖 우상 숭배를 추구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똑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사역 리더십은 말 그



대로 전쟁터입니다. 따라서 평화 시대에도 통하는 수동성에 근거한 가정을 가지고는 결코 현실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사역을 주도하던 귀한 리더가 비열한 리더가 됩니다. 그건 그들의 마음이 사탄에게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여전히 사역을 하면서도 온갖 거짓 신(권력, 명예, 물질, 영향력, 찬사, 돈, 세상의 존경)의 대사로 전락합니다. 사역 내내 리더는 변화를 겪습니다. 때때로 그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과 대사적 부름에 대한 더 깊은 복종으로 드러나지만, 동시에 다른 주인을 섬기는 쪽으로 표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글을 읽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예외 없이 리더의 마음과 삶과 사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슬픈 표류를 목격했을 것입니다.

목사에게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타락이 공개적으로 드러난 리더를 볼 때마다, 내가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이 사람이 이토록 끔찍한 지경에까지 이를 때까지 주변에서 눈치 채는 사람이 없었을까? 있었다면, 왜 가만히 보고만 있었을까?” 이런 질문이 가능한 이유는 별 어려움 없이 다음 몇 가지 가정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첫째, 주변에서 리더의 변화를 모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리더가 과거에도 지금과 똑같았다면, 그는 애초에 지금 이 자리에 뻘뻘하지도 않았을 터이니 말입니다. 둘째, 변화는 결코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수년에 걸쳐서 조각조각 일어났을 것입니다. 즉, 그의 삶에서 변화가 일어났다는 증거가 보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향한 민감성과 충성심에서 변화가 생겼다는 증거가 드러나지 않는 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조금 전 내가 던진 질문을 다시 묻는 건 매우 적절합니다.

여기 변질된 리더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에 기반을 둔, 복음에 헌신하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리더십 커뮤니티가 그를 사랑으로 대면해서 거짓된 욕망에서 구출하고 또 거짓 사역의 우상으로부터 보호하려고 애쓰지 않는 걸까요? 거기에는 도대체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나는 이제부터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 불쾌감을 느끼도록, 아니 화를 돋우는 방식으로 이 질문에 대답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일단 변명이 아닌 설명부터 조금 해야겠습니다. 리더의 태도와 행동에서 문제가 되는 증거에 직면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그 리더가 일으키는 성과가 인격을 압도하기 때문입니다.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얼마나 자주 듣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3면으로 계속〉



기적을 믿으면서도 왜 기대하지 않는 걸까?

어느 쪽이든 그는 여전히 주권자이고 선하시다

심각한 다리 부상으로 2개월간 쉬었다가 다시 성경 학교에 복귀한 첫 날이었다. 불행히도 무지, 잘못된 의학적 조언, 만성 통증에 대한 비이성적인 두려움이 합쳐져 다리는 도통 나아지지 않았고, 나는 여전히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 했다. 그날 일요일 오후에 캠퍼스 식당에서 휠체어를 타고 가는데 직원 한 사람이 내 다리를 위해서 기도했다. 나도 같이 고개를 숙였지만 믿었던 건 아니었다. 한 달 전, 친구 하나가 내 다리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도 되겠냐고 물었다. 휠체어를 타고 처음으로 교회에 간 주일이었다. 예배를 드리는 1시간 30분 내내 교인들의 등만 바라보는 건 고통스러웠다. 슬픔 때문인지, 아니면 뭐가 뭔지 모르겠다는 생각 때문이었는지 몰라도, 나는 기도해 주고 싶다는 친

구의 제안을 거절했다. 나는 하나님이 여전히 기적을 통해 치유하신다고 믿는 은사지 속론자이다. 하지만 기도는 해도 나는 기적을 기대한 적이 없다. 왜일까? 오늘날 기적의 역할에 대한 서구 교회의 의견은 엇갈린다. 많은 사람은 기적이 시대에 뒤떨어진 이야기라고 또는 극히 드물다고 말한다. 기적은 사도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고 교회를 세우는 데 도움이 되도록 의도된 것이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나처럼 하나님이 여전히 기적을 통해 교회를 축복하신다고 믿는 이들도 있다. 웨인 그루텐이 말했듯이, 비록 기적이 신자의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드문” 방법일지라도 말이다.

〈12면으로 계속〉



2면

시론 백승철 목사



3면

목회단상 광덕근 목사



4면

푸른초장 손영규 목사

할렐루야백화점

다이어리 | 시년 교회배너 | 한글봉투 | 기독교의 모든것

인터넷 쇼핑몰: BestSaver.us | gospellmall@hotmail.com

뉴욕: 40-21 159th St. #1B, Flushing, NY 11358
Tel. (718)762-0011
Text주문: (347)952-5442, (347)858-6063
뉴저지: 5B. Brinkerhoff Terrace, Palisades Park, NJ 07650
Tel. (201)346-0030

온라인 스마트교육의 최강자

월드미션대학교

kr.wmu.edu | 500 Shatto Pl., L.A. CA 90020 | 213.388.1000

윤새롬 치과

Nouvelle Dental

Lily Yoon DMD / 원장 윤새롬

T. 917- 908-0075

154-08 Northern Blvd 2H, Flushing, NY 11354
YOON.DENTAL154@gmail.com | WWW.LILYMD.COM

기독교서적센터

The Christian Book Center

각종 행사 기념품 주문 제작

성화, 성구책자, 크리스탈강대상, 성가대·목사까운

(323) 737-7699

인터넷 쇼핑몰: www.lachristianbookcenter.com
E-mail: cbc0191@hotmail.com
1027 S. Western Ave., #2 L.A. CA 90006

지금부터
깨어 기도
할 때

국가를 위한
특별 기도회

주는 주의 일을 나타내시옵소서! (합3:2)

대한민국과 미국 그리고 LA에 하나님의 비상한 인도하심이 있도록 부르짖는
은혜의 자리에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위해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미국을 위해

화재로 어려움에
처한 LA를 위해

LA

2025.1.31(금) 9:00AM

새생명비전교회(강준민 목사)

OC

2025.1.31(금) 7:00PM

은혜한인교회(한기홍 목사)

주관: 미주 성시화 운동본부, 다민족연합기도운동, 새생명비전교회, 은혜한인교회, OC 교협

문의: 강태광 목사 (323. 578. 7933, 조진용 목사 (714. 686. 1441)

주최: 남가주 교협, 각지역 목사회, 각지역 여성목사회, 각지역 장로회, 청교도기도동역자 기도회, JAMA, 남가주 중보기도팀연합기도대회, 미주한인군목회, 세기모서부지부, 월드쉐어USA, 국제교육선교법인 코레아(COREA), 남가주 한국예비역기독교군인회

후원: 이승만대통령 기념사업회, 월남전참전전우회, CA월참전우회 각 기독교언론(기독일보, 미주크리스천, 크리스천비전, 크리스천위클리, 크리스천헤럴드, 미주복음방송, 사람과 사회, 우리 방송)

시론

있는 그 길을 이어가다



백승철 목사
(사모하는교회, 시인, 문학평론가)

아침에 눈 뜬 세상은 달력 위 사라졌던 숫자들이 되살아나 제자리를 찾고 있다. 2024년을 잇는 2025년 그 길을 오늘 아침 이어가고 있다. 여전히 어제와 같은 오늘이다. 하루를 시작하는 태양도 바람에 흔들려 밀려나지 않고 동쪽 하늘에서 시작해 서쪽 하늘 밑으로 사라질 것이다. 그날이 어제이고 오늘이 내일 같이 느껴지는 이유다. 있는 그 길을 이어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

“세월을 아끼라 Making good use of the time”(엡 5:16). “세월을 아끼라”는 간단하지만 완성된 문장이다. 이 말씀이 어떻게 조립되었을까? 그 문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결론적으로 그 문장에서 끌어올린 중요한 세 가지 개념이 정립되어야 한다. 그 개념을 정리하기 위해 질문을 만들고 그 질문은 완성된 말씀이 반드시 정답이 되어야 하는 규칙이다.

첫 번째, 세월의 개념은 무엇일까? 그 세월의 개념이 명료해야 “세월을 아끼라”는 문장을 이해할 수 있다. 세월의 최소 개념은 시간이다. 크로노스(kronos)는 일반적인 시간으로 누구에게나 주어진 객관적 시간이다. 본문에 사용된 카이로스(kairos)는 특별한 사건이 일어난 시간을 말한다. 질적인 시간으로 기회로 번역이 가능하다. 결국, 그 시간은 하나님에 주신 기회이다.

두 번째, 세월을 아끼는 방법은 무엇일까? 성경적 표현으로 하면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쳐 주옵소서”(시 90:12). 질문형이다. 철학적 시각에서는 삶의 의미를 다룬다.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의 방법론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세월을 아끼는 실체는 삶의 문제로 귀결된다. 이 영역에서는 존재론적인 인간의 궁극적 삶의 방향성을 다룬다.

세 번째, “아끼라”는 개념은 무엇일까? 어원적 의미는 “사다. 취하다. 내 것으로 만들다”이다. 대가를 주고 사서 완전히 내 것으로 회복하는 행위다. 곧 아낀 것은 죽음 후에도 영원히 존재하는 영역이다. “아끼라”는 속량(구속)으로도 사용되었다(갈 3:13. 4:5).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갈 3:13).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죽음으로 대가를 지불하고 죄악된 세상에서 나를 산 것이 속량이다. 하나님 것으로 만든 그 구속은 영원성에 기초한다.

세월의 시간성에는 아주 독특한 특징이 숨어 있다. 시간은 공평하게 누구나 공유하는 자산이다. 가난한 사람, 부한 사람, 남성, 여성, 어른, 아이, 병약한 사람, 건강한 사람, 모든 사람이 소유한 공통적인 개념이다. 누구나 사용하는 것으로 인해 그 시간을 값없이 여기는 경우도 생긴다. 느끼지 못하거나 흥미가 없는 경우도 발생하며 특별한 가치가 없는, 별것 아닌 것으로 생각하기도 한다. 시간은 신비한 가치가 있다. 시간의 크기, 모양, 색깔, 무게,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비롯한 거의 모든 세균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현미경 관찰을 해보면 모양과 색깔이 있다. 하지만 시간은 보이지 않을뿐더러 변하지도 않는다. 수천 년이 흘러도 같은 그 시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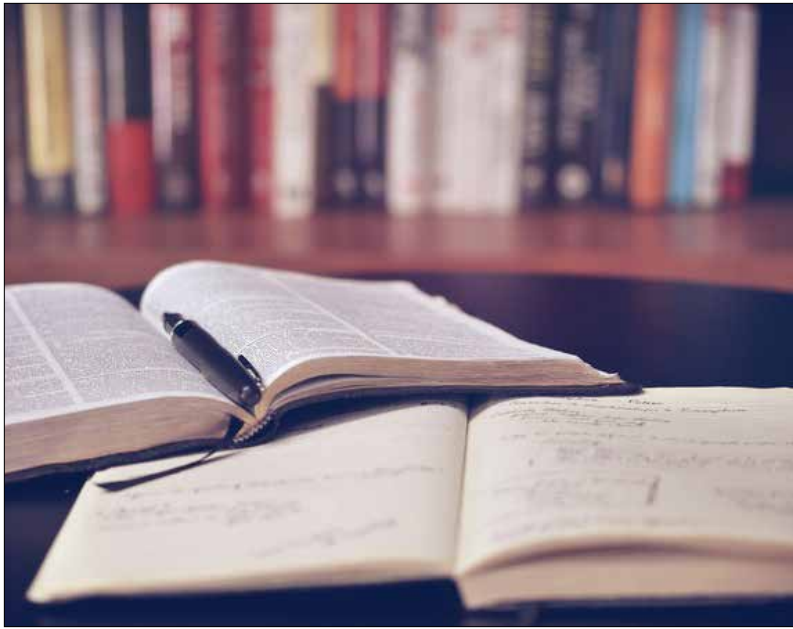
“언젠가는 어렴풋한 종말에 가서 / 저 태양이 나에게 마지막 이별을 고할 때가 오리라 / 목동은 보리수 그늘에서 피리를 불고 / 가족들은 강 기슭언덕에서 풀을 뜯고 있을 때 / 내 운명은 어둠 속으로 지날 것이다” 19세기 낭만과 시인 타골.

시인은 죽음에 이르는 길을 걷고 있는데 그 주변 환경은 너무나 목가적이고 서정적 풍경이다. 죽음은 그 넓은 우주에서 오로지 홀로 떨어진 먼지와 같은 존재다. 시간은 머무르지 않는 지속성이 있다. 그 누구도 시간을 멈추게 하거나 조절하거나 정지시킬 수 없다. 시간을 쥔 청년의 세월로 고정시킬 수도 없다. 그러므로 시간의 주인은 결코 인간이 될 수 없다는 논거이다.

결국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 선상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을 삶의 지표로 삼는 것이다. 내가 죽고 그 후에 모든 것은 사라지지만 찬양(엡 5:19), 감사(엡 5:20), 경외(엡 5:21)는 사라지지 않을 영원히 나와 관계되는 요소다. 2025년에도 여전히 삶의 목적을 그곳에 정조준해야 될 이유다. 있는 그 길을 이어가는 시론 독자 모두에게 믿음의 삶이 하나님 역사 기록이 되기를 축복하며 두 손을 모은다.

www.epipodo.com

완벽한 설교 목심이 번아웃으로 이어지는 이유
설교자여, 힘을 내자!



장기적으로 볼 때 목회자가 만나 는 가장 큰 위험 중 하나가 번아웃 이다. 그리고 그 번아웃을 일으킬 가장 큰 위험은 설교에 대한 완벽 주의 욕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 설 교를 완벽하게 준비하겠다는 생각 이 훌륭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그것은 불안이나 탈진, 또는 두 가지를 다 일으키기에 최적의 상황을 만든다.

토요일 아침 운전하는데 아내가 물었다. “설교 준비는 잘되고 있어 요?” 나는 다음 주일에 설교가 잡혀 있었다. 사실 그때까지 준비에 열 시간 가까이 보냈지만 나는 “95퍼 센트 정도 됐어” 하고 대답했다. 95 퍼센트라는 건... 사실상 다 끝났다는 의미였다. 설교 준비가 100퍼센 트 되었다고 생각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니까.

R. C. 스프라울은 전적 타락을 “ 완전한(utter)” 타락과 구별했다. 전 적 타락은 죄가 인간 전체에 해를 끼쳤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인간에 게는 얼마든지 더 악화될 여지가 있다. 누구나 다 죄인이지만, 다다 를 수 있는 최악의 죄인 상태는 아 니라는 말이다. 우리에게는 언제라 도 더 많은 악을 행할 수 있는 잠재 력이 있다. 마찬가지로, “완벽한 설 교 준비란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할 때, 그게 당신이 주일 아침에 제대 로 준비된 설교를 할 수 없다는 의 미가 아니다. 내 말의 요지는 설교 에는 언제나 더 준비될 여지가 있 다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설교 준 비에는 끝이 있을 수 없다.

그럼 더 준비할 여지가 있는 한 설교 원고를 계속 붙잡고 있어야 할까? 아니다.

말콤 글래드웰은 ‘아웃라이어’에 서 성공하는 사람이 실패하는 사람 의 이유에 대해서 썼다. 그는 재능, GPA, 좋은 시험 점수만으로는 성공 에 한계가 있다고 말한다. 물론 성 공하려면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 2.5점을 받아서 하버드에 들어갈 수 는 없다. 하지만 3.8점을 받는 사람 이라면, 그때부터 진짜 중요한 건 성적 이 아니다. 3.9점과 3.95점의 차이는 별 의미가 없다. 글래드웰은 모든 부분에서 최고가 되려고 노력 하는 대신에 특정 “한계점”(이게 핵

심이다)의 충족 여부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일단 한계점에 도달한 경 우에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건, 유전, 개인적 양육, 거주지, 네트워 크 등등 대부분 스스로 통제가 불 가능한 외적 요소에 의해서 결정되 기 때문이다.

우리는 설교에 이 개념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다. 설교 준비도 특정 한계점에 도달하면(오로지 당신 자 신만이 그 한계점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거기에 도달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다), 설교 준비는 끝난 거 다. 그걸로 충분하다. 준비는 끝이 났다. 더 이상 설교 원고에 연연하 지 말라. 그 이후에도 설교를 더 준비해야 한다면, 그건 기도와 이미 준비한 내용을 소화하는 것이다. 노 트북은 옆으로 치워버리라. 이미 한 계점에 도달한 설교 원고에서 문장 한두 개 바꾼다고 해서 설교가 확 달라지는 건 전혀 아니다.

그렇다고 내가 지금 설교 준비에 지름길이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설교는 목 사에게 가장 중요한 직무이다. 매주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설교를 하는 목사는 사역에 적합한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완벽한 설교 원고를 쓰겠다는 욕심은 그 자체가 얼마든지 우상으로 바뀔 수도 있는 진짜 위험이다. 특히 완벽한 설교를 향한 동기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라면 더욱 더 그렇다.

완벽주의가 영적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그건 일종의 자 기 몰입이다. 예를 들어, 데이비드 머레이는 ‘리셋’에서 설교 완벽주의 때문에 고생했던 한 학생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내가 가르친 신학생 중 한 명은 설교를 다듬고 또 다듬 어서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서 매 주 30시간 이상을 투자했다. 그는 결국 일 년도 안 되어 번아웃되었 고 사역을 그만두었는데, 나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별로 놀라지 않았다.”

한번은 존경받는 어느 신약 학자 와 조만간 출간될 그의 서신서 주 석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나는 그 주석이 언제 완성될 지 물었다. 주석은 결코 완성될 수 없다는 게 그의 대답이었다. 수년간 의 연구와 집필 끝에 그는 결국 임 박한 마감일을 맞추기 위해 출판사 에 원고를 보내기는 했지만, ‘얼마 든지 더 잘 쓸 수도 있었는데’라는 강박 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 었다.

설교자도 이 신학자와 비슷한 느 낌을 가진다.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보통 목요일 오후 또는 토요일 아 침 정도에 이런 느낌을 가진다. “이 제 다 끝났어. 원고 보는 것도 이제 지쳤어. 솔직히 말해서, 준비하면서 폼수를 부리지도 않았고 지금까지 준비한 내용으로 충분해. 책도 열심히 읽었고 기도도 많이 했어.”

(3면으로 계속)

교회 행사 | 각종 집회
• 부활절 성탄절 안수식 •

배너 & 현수막 맞춤형 주문 제작 업체
당일 제작 및 배송 | 무료 디자인 제공

influsign.com info@influsign.com

G2G MISSION CENTER
(가족중심 자비방선교회, 미국비영리단체 등록)

- * 자녀교육 및 결혼 가정세미나
- * 감사나눔 세미나 및 간증설교

[세 자녀가 하버드에 동부 명문대학에 진학, 졸업 후 전문직 직업과 20대 중반 결혼시킨 경험과 노하우 공유]

세미나, 간증설교 문의 : g2gmission@hotmail.com

< 감사 이훈구 장로 약력 >

- * 목회학 석사 및 선교학 박사
- * G2G Mission Center (G2G선교회) 설립 및 대표(2013.1 - 현재)
- * 감사나눔 공동체 :
- * 감사나눔리더(임원) (2023.8-현재)
- * 저서: 크리스천 자녀교육, 결혼을 어떻게 시켰어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

교회인쇄물 · 현금봉투 · 배너

Order Online 30% LOW PRICE

in2printing.com

인투인쇄 T. 718-425-8505

사랑한인교회 (LA 한인타운)

사랑한인교회에서 함께 사역할 부교역자와 행정간사를 청빙합니다.

● 파트타임 부교역자

자격: 전도사, 목사

● 파트타임 행정간사

민음이 좋은 평신도도 가함

접수 및 문의: lovekrch@gmail.com

Candidacy Qualification

Individuals who have obtained or is expected to graduate by June 29, 2025 (including the 30th) with a Master of Divinity (M.Div) degree from seminaries managed by Korean American Presbyterian Church or affiliated with the General Assembly, and are committed to Reformed Theology with a blameless life in faith, clear calling and spiritual leadership.

Exam Subjects

Exegesis on Reformed Theology Perspective

a) Written Test :

(1) Church History (2) Systematic Theology

(3) American Church History (4) Constitution of KAPC

b) Written Assignment :

(1) OT Exegesis Paper (2) NT Exegesis Paper

(3) Thesis Paper (4) Sermon Manuscript

(1) OT Exegesis Text : 2 Samuel 23:13-17

(2) NT Exegesis Text : 1 Thessalonians 4:13-18

(3) Thesis Topic : "From a reformed perspective, present a strategy for the restoration and nurture of the Endemic Generation that have left the church."

(4) Sermon Text: (Choose One) O.T- Leviticus 16:1-10 "The Goat Sent Away into the wilderness to Azazel" N.T- John 12:27 "For This Purpose I Have Come to This Hour"

(5) Instructions for the written assignments :

* Plagiarism will not be tolerated.

You must submit one hard copy and email a PDF file of each written assignment according to the following regulations:

ⓐ Use 8-1/2" by 11" letter size papers.

ⓑ Use 12-point font (Times New Roman), 1-inch margins, double-spaced, use page numbering, proper footnoting, and include bibliography.

ⓒ Both thesis and exegesis papers should be about 25 pages each in length excluding title page and bibliography. The length of the sermon text should correspond to 30 minutes of actual preaching time.

ⓓ Use a common academic writing format, and all quotes, and cited information must accompany proper references (i. e. footnotes or endnotes).

ⓔ All PDF files must be emailed to euihan@hotmail.com with the following instructions:

① The subject line must include your name

② File attachments must include your name and assignment title. (Ex. David Chun-OTExegesisPaper.pdf)

c) Oral Interview

The following information is regarding the "Pastoral Ordination Candidacy Qualification and Exams," which will be offered in May of 2025

Pastoral Ordination Candidacy Qualification and Exams

Instructions for Documents and Written Assignments Submission

a) All required documents and written assignments must be submitted by March 29, 2025 (Mailed documents must be post-marked by March 29, 2025. No late submissions will be accepted).

b) Submitted documents and assignments will not be returned to Candidates.

c) The results of the exam will be announced during the 49th meeting of the General Assembly (May 27, 2025). The candidates who successfully passed the examination process will be announced on the floor and will be given Ordination Candidate Qualification Certificates.

Exam Date and Place

a) Dates : May 26(Mon)~27(Tue), 2025

b) Place : Grandover Resort & Spa, A Wyndham Grand Hotel

1000 Club Rd, Greensboro, NC 27407 / (336)394-1800

Accompanying Documents

a) A copy of the certificate of graduation of Bachelor & M. Div. degree or a letter from the registrar (or the president of a seminary) certifying that the candidate is expected to graduate by June 29, 2025.

b) An official copy of transcript for the whole M. Div. program.

c) A letter of recommendation from the moderator of the presbytery under which the candidate is under care.

d) An official letter from a Presbytery (issued by the clerk) confirming that the candidate under care is in good standing.

e) Curriculum Vita (CV) including a clear history of faith (For example, the year of baptism, the name of the church where the baptism was given and the name of the officiating minister, etc.)

f) Two passport-size photos of the candidate.

g) Fee: \$100 (USD). Notice after receipt

Miscellaneous Information

a) Candidates must reserve rooms for the dates of exam (5/25,26) through Rev. David Chun

b) Candidates may use laptops for written exams, but the following conditions must be met :
(1) The Laptop must contain only a Word Processing program.
(2) The screen is not to be changed during the exam. Violators will not be tolerated and will result in dismissal from the examination room.
(3) One must bring his own printer. Any mechanical problems will not constitute a valid excuse for failing to submit the exam on time.

Submit To

Rev. David Chun

Address : 2201 Gramercy Way Mt. Laurel, NJ 08054

Cell : (856) 359-5345 E-mail : djchun5882@gmail.com

Contact Persons for Information

a) Chair of the Exam Committee Rev. Joseph Kim redeemer@gmail.com

b) Clerk of the Exam Committee Rev. David Chun djchun5882@gmail.com

Korean American Presbyterian Church

총 회 장 : 권혁천 목사

서 기 : 김대업 목사

고시부부장 : 김요섭 목사

고시부서기 : 전동진 목사

성과가 아니라 인격을...

(1면에서 계속)

“그래도 설교 하나는 정말 은혜롭게 하잖아?”, “그래도 새로 영접한 교인 수를 한 번 봐.”, “그래도 우리 교회가 얼마나 성장했는데....”, “그래도 우리가 새로 개척한 교회가 몇 개나 되는데 그래?”, “그래도 목사님 아니었으면, 이번에 새로 오픈한 사역은 힘들었지.”, “그래도 목사님이 이번에 만든 전도 교재 좀 봐요. 얼마나 훌륭해?”

우리는 리더의 인격보다 성과를 더 중시한다고 드러내서 말하는 커뮤니티는 없습니다. 하지만 성과는 인격 문제를 다루지 않는 중요한 논리가 됩니다. 바로 그 부적절한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위대한 주의 종이 하나님을 위해서 이론 결과를 좀 보라고요. 우리가 무슨 자적으로 그의 사역에 흠집을 낸다는 말입니까?” 그 결과 리더십 커뮤니티는 받아들이는 안 될 것을 받아들이고, 말해야 할 때 침묵하고, 결국 행동해야 할 때에 수동적이 됩니다. 입으로 고백하는 데에 있어서는 바뀐 건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기능적 수준에서 리더십 커뮤니티는 경건한 인격과 대사로서의 충성보다 사역의 성공을 더 중시합니다. 결국 리더 중 한 명이 변질되었다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핵심은 리더십 커뮤니티 전체가 변질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경우에 그들은 그런 사실을 보지 못합니다.

이러한 변화가 종종 어떻게 일어나는지 살펴봅시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항상 이런 식으로 발생한다는 게 아닙니다. 단지 이게 전형적인 발생 형태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느린 전환

사역 초기에는 리더의 인격에 대한 높은 수준의 관심과 함께 사랑의 격려와 책임감이 넘치기 마련입니다. 리더가 어떻게 사역하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지까지 사람들은 주의 깊게 관찰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그

는 리더라면 누구에게나 꼭 필요한 커뮤니티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하지만 몇 달, 몇 년이 지나고 리더의 은사가 풍부하고 흥미로운 방식으로 열매를 맺으면서 주변의 리더들은 눈을 감고 아예 귀를 닫기 시작합니다. 그건 어쩌면 아무도 언급하지 않고 넘어간 회의에서 리더가 쏟아낸 분노 또는 직원에 대한 태도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역시 다들 모른 채하고 넘어간 어떤 여성에 대한 부적절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능력 있고 열매를 맺는 이 리더는 이제 자신이 속한 리더십 커뮤니티에서 꼭 필요한 복음의 목소리까지 침묵시키는 파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럴수록 동료 리더들은 속삭이는 성령의 음성에 저항하는 데에 익숙해집니다. 분명히 잘못된 말과 행동이 일어납니다. 그들은 알면서도 성령의 음성을 억누릅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바로 반응하는 대신에 그냥 침묵 속에서 앉아 있을 뿐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자기 자신에게도 또는 다른 이들과의 대화에서도 문제를 은화로 정직하게 대면하기보다는 그럴 수도 있다는 식으로 변명합니다. 그게 그렇게까지 심각한 문제는 아니라는 식으로 자신을 설득합니다. 그리고 문제를 훨씬 덜 심각하게 보이도록 만드는 각종 대안적인 관점과 설명까지 만들어냅니다. 이런 모든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경우에 이 리더십 커뮤니티는 어떻게 될까요? 피해를 당한 사람으로부터 해당 리더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윤리와 품성의 순수함에 대한 헌신을 바탕으로 리더의 잘못을 은화로 다루기는커녕, 오래지 않아서 그를 변호하는 데에만 급급할 것입니다. 그 결과 한때 사랑과 깨어있음, 구원과 영혼 보호를 기치로 내걸었던 이 복음 커뮤니티는 변명하고 옹호하는 무리들의 커뮤니티로 변질됩니다. 리더의 능력과 성과는 오히려 그를 더 이상 목사로서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동역자들이 사랑하는 건 그의 열매이지 인간 자체가 아닙니다. 이제 그가 지은 성은 그의 영향보다 더 소중해졌습니다. 동역자들은 그가 사랑의 조인과 대면을 거부하는 순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인간에 대한 두려움을 이겼을

때 따라오는 견고하고 끊임없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대신에 하나같이 다 침묵 속에 움츠러들고 말았습니다.

어떤 리더도 혼자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어떤 리더도 경건한 마음으로 충고하는 동역자를 무시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어떤 리더도 복음의 신실성과 도덕성을 손상시키면서까지 누군가에게 충성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역의 열매도 마음이 타락하는 결과를 가져와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능력 있고 성공했더라도, 모든 리더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신뢰할 수 있는 거울을 통해서 자신을 성찰해야만 합니다. 어떤 리더십 커뮤니티도 비전 달성을 위해 신실함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준비하신 리더십 커뮤니티가 아예 손쓰지 못하는 리더는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리더는 자신의 잘못을 직시하고 회복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사역은 가치를 놓고 싸우는 매일의 전쟁입니다. 하지만 두려워하거나 낙담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혼자 싸우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든 리더는 하나님의 성화시키는 은혜의 대상입니다. 우리 마음이 진짜 소중히 여기는 가치가 무엇인지에 관해서, 성화는 점진적으로 진실을 폭로합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확신시키고, 다시 찾게 하며 결국에는 회복시킵니다. 우리의 소망은 내가 항상 옳은 것을 얻을 것이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결코 성화의 작업을 멈추지 않으신다는 확신입니다. 나는 타협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아닙니다. 나는 두려움에 굴복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아닙니다. 우리는 사물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속을지 몰라도, 나에 대한 하나님의 눈은 항상 완벽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분의 사역은 우리의 소망이며, 그렇기에 우리는 더 잘하기 위해 오늘도 헌신합니다. 오늘도 나의 약점과 실패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초심을 회복시키고 새롭게 시작하라는 그분의 초대를 받아들입니다.

by Paul Tripp, TGC

목회단상

심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곽덕근 목사 (은혜와평강교회 담임)

심어야 거둘 수 있습니다. 많이 심어야 많이 거둘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자연의 법칙인 동시에 하나님의 크신 복을 받는 법칙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가 경험한 축복의 비결이기도 합니다.

2005년 1월, 내가 뎀피스연합교회의 담임목사로 사역을 시작할 때였습니다. 교회가 어려움을 겪은 후라 제대로 된 사례를 받지 못하였지만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하루는 아내와 나는 도대체 수입과 지출이 어떻게 되는지 적어보자며 노트에 적어가다가 도중에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간쯤 적었을 뿐인데도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내는 구멍 뚫린 속옷을 입기까지 하며 아끼고 아껴도 세 아이들 교육시키면서 생활비는 늘 모자랐습니다. 그 때 우리 부부는 비장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왕 모자라는 것, 심이조를 드려보자.” 그렇게 해서 우리 가정은 1년간 심이조를 드렸습니다. 우리 부부는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고 심이조를 드린 것은 아닙니다. 이래도 부족하고 저래도 부족하니 하나님께 맡기는 심정으로 심이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해에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 속에 오히려 부족함이 없게 되었습니다. 거기다 교회가 부흥되는 축복을 더 하여 주셨습니다.

2020년 시작과 함께 코로나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교회는 재정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우리 부부는 이전에 한번 경험해 보았던 심이조를 올 한 해 동안 드리기로 했습니다. 사실 2020년은 아내가 섬유근육통이라는 희귀한 질병으로 많이 아팠을 때입니다.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며 치료를 받았고, 특히 한방 치료를 받느라 치료비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 와중에 나도 오십견 때문에 침도 맞고 한약도 지어 먹어야 했습니다. 아들 결혼식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부부는 약속대로 한 해 동안 심이조를 드렸습니다. 감사헌금도 더 풍성히 드렸습니다. 아마 그 해에 사례의 반은 현금으로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부족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다른 해 보다도 더 풍성한 축복을 누렸습니다. 교회적으로도 재정적인 어려움이 없이 든든히 세워져 나갔습니다. 아내의 아픈 몸도 갈수록 호전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많이 심은 자에게 많이 거두게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고후 9:10)”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는 우리가 먹을 양식이 있고, 우리가 심어야만 하는 씨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씨는 우리가 먹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심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심는 자에게 거두게 하시는 축복을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총신대학 신학대학원 동기 중에 장모가 동대문에서 장사를 하셨던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장모는 당시에 큰돈이라 할 수 있는 20만원 정도를 심이조를 드렸는데, 50만원을 심이조로 드릴 수 있도록 사백마다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던 중에 믿음의 확신이 생기자 50만원씩 ‘미리 심이조’를 시작하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장모가 믿음으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셨고, 그 분의 자녀들에게까지 복을 더 하여 주셔서 두 아들은 목사나 대학교수가 되었고, 딸은 동기 목사의 사모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 심이조 드리고 ‘미리 심이조’를 드려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심는 자로 하여금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많이 심는 자가 많이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복을 받는 비결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는 자가 복이 있음을 믿음으로 2025년 새해에는 많이 심는 자가 되어 풍성한 것으로 거두게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revkwak@gmail.com

완벽한 설교 욕심이...

(2면에서 계속)

성경 원문을 조사했고, 구조를 나름 견고하게 구축했어. 말씀 안에서 살았고 설교 맥락에 맞춰서 내용도 보강했어. 이제는 끝났어. 최선을 다해서 설교할 거야. 물론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초라하겠지만,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겠어.”

그 누구도 완벽한 설교 원고로 설교하지 않는다. 대신에 댄 도리아니가 말했듯이, 우리는 언제나 약간의 공황 상태에서 설교한다. 지나치게 준비하면, 특히 단어 하나하나에 대해서 비정확성으로까지 신경을 쓰면, 보통 진부하고 지루한 설교로 이어진다. 추가로 들인 노력은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 더 많은 노력이 항상 더 나

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말씀의 진리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것이 설교 원고를 완벽하게 만드는 것보다 낫다.

그러니 설교자여, 힘을 내자. 완벽한 설교 원고를 들고 강대상에 서는 날은 결코 오지 않을 것이다. 언제나 설교에는 개성의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기증전에 도달할 때까지만 준비하면 된다. 그리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토요일에는 설교에 대

해서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게 좋다. 주일 아침 일찍 일어나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그리고 설교 원고를 한 번 더 가볍게 보자. 교회로 가서 강대상에 오르기 전에 마지막으로 주님께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자. 예수님에게 보리랑 다져 개와 생선 두 조각을 내어준 소년처럼 말이다.

by David Kaywood, TGC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발행인 겸 편집인: 김성국 ■ 편집국장: 김재상 ■ LA지사장: 이성자

· L.A. Office
·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 Tel. (323)665-0009 (대표) (213)674-7982
· E-mail : lachpress@gmail.com

·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 Tel(718)886-4400 (대표)
· E-mail : nychpress@gmail.com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 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except for NEW YEAR, EASTER, Independence Day, Thanksgiving Day.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Periodical postage is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감사한인교회  담임목사 : 구봉주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한어대학청년예배: 오후 2:00 주일영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영어예배: 오전 9:30, 11:30 Tel.(714)521-0891, www.thanksgivingchurch.com 66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나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 진윤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평상) 주일영양예배: 오전 11: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lafccusa@yahoo.com / www.lafcc.com Tel.(323)913-4498,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	남가주든한교회  담임목사 : 김홍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타이. Youth예배: 오전 11:00 주 일 학 교: 오전 11:00 주일영양예배: 오후 7:30 새벽 기도회: 오전 6:00(화-금) Tel.(213)481-2779 / facebook.com/srscsa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	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목사 : 노창수 주일 1부예배: 오전 7:05 주일 2부예배: 오전 9:05 주일 3부예배: 오전 11:05 주일 4부 (젊은이 예배) : 오후 2:00 영양권 (장소:KDC, 캠퍼드림센터) 1부: 오전 9:10 2부: 오전 11:10 Tel.(714)772-7777, Fax.(714)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대동장로교회  담임목사 : 김정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9:30, 11:00 새벽 기도 회: 오전 6:00(월-토) 금요찬양예배: 저녁 7:30 Tel.(310)719-2244, www.dkcpc.org 15411 N.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미주양곡교회  담임목사 : 지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오찬찬양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 오전 5:30(매일) Tel.(213)38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미주평안교회  담임목사 : 임승진 주일 1부: 오전 8:30 (영양) 2부: 오전 9:45 3부: 오전 11:00 (청년부) 4부: 오후 1:45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6:00 Tel.(213)381-2202, www.mpcda.org 170 Birmini Pl, Los Angeles, CA 90004	복음장로교회  담임목사 : 이광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2:00(대학부) 금요일예배: 오후 7:30 Tel.(562)694-6214 1751 W. La Habra Bl., La Habra, CA 90631	베델한인교회  담임목사 : 김한요 주일예배 1부: 오전 7:00 주일예배 2부: 오전 9:00 주일예배 3부: 오전 11:00 영양예배: 오후 2:00 영아회중: 오전 9:00, 11:00 일어예배: 오후 1:15 수요일예배: 오전 10:00 주일학교: 오전 9:00, 11:00 Tel.(949)854-4010 / biblehaninc.org / www.bkc.org 18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	세계소망교회  담임목사 : 오세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Tel.(213)-235-7891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	세계전교교회  담임목사 : 김창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교회학교예배: 오전 11:00 E M 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베델리자회 공영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Tel.(213) 389-1827 / www.wmcs.com/worldmissionchurch827@gmail.com 927 Menlo Ave, Los Angeles, CA 90006
실비치 사랑교회 (Seal Beach Se-Rang Church)  담임목사 : 이정현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침례예배: 오후 6:30 Tel.(310)749-4756 실비치 리저월드 Clubhouse 3 Lobby(주말) Clubhouse 3 room 1(1부)	열매교회  담임목사 : 김요섭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수 요 예배: 오후 7:00 새 배 예배: 오전 6:00(화-토) Tel.(323)737-3008, Cel.(213)215-8823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엘피스사역원  원장: 박순몽 목사 (LA복음연합관리교회합동목사) 성경사역: (월-금) 오전 10시 오후 4:30 사역장상: 1. 영성사역자 2. 교회 평신도 여성리더 사 역: 1. 복음성당 2. 가정사역메나 3. 말씀사역 4. 네트워킹 사역 Tel.(213)700-9828, www.elpisfamily.org 1200 S. Manhattan Pl, LA, CA 90019	은혜한인교회  담임목사 : 한기홍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금요성경강화: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6:00(토) 온라인기도회: 온라인 24시간 온/오프 Tel.(714)446-6200, www.gracemilly.com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주님새운교회  담임목사 : 박성규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 예배: 오후 1:30(청년) 주 일 학 교: 오전 11:00 새 배 기 도: 오전 5:30(월-토) 성령대령회: 오후 7:20(금) Tel.(310)325-4020, www.junimchurch.com 17910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5	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 신승훈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 예배: 오후 1:00 수요/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월-금) Tel.(213)749-4500, www.gdcpc.org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좋은마음교회  담임목사 : 신원규 주일예배: 오전 11:45 영양예배(성인/청년): 오전 11: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주일학교: 오전 11:45 목요기도회: 저녁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Tel.(714)646-9259 www.sccalsamsungchurch.org 111W Las Palmas Dr., Fullerton, CA 92835	코너스톤 교회  담임목사 : 이종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 요 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Tel.(310)530-4040(CH), www.cornersstonetv.com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	토렌스조은교회  담임목사 : 김우준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본당) 주일 2부예배: 오전 9:45 (본당) E M 예 배: 오전 9:45 (101층)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본당) K M 창년예배: 오후 2:00 (본당) 수 요 예 배: 오후 8:00 (본당) 새 배 기 도: (월-토) 오전 5:30 (본당) Tel: 310-370-5500, www.torrencecpc.org 1966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평강교회  담임목사 : 송관 주일예배: 오전 11:00 나눔과 교제: 오후 1:00 T E E - 동요로운 삶(주일): 오전 9:30 화요 3.3.3(3월)도: 매월 둘째주 오전 10:30 목요 거리전도: 오전 9:00 새 배 기 도: 오전 5:30(월-금), 오후 7:30 새 배 기 도: (월-토): 오전 6:00 Tel: 213-383-9136, pyongkangch@gmail.com 606 El Centro St South Pasadena CA 91103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회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 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회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 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목·양·칼·럼



한평우 목사
(유럽목회자세미나연구원 원장)

모파상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목마르게 갈구합니다. 성공에 무관심하다면, 좌절하고 절망한 사람을 제외하면 없을 것입니다. 성공에 대한 기대와 소망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돈을 얼마를 모으겠다는 작은 소망에서부터 최고의 자리에 오

르겠다는 원대한 소망까지. 이렇게 성공을 목마르게 원하지만, 막상 성공한 사람들 가운데는 오히려 성공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하고 허를 차게 되는 예도 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프랑스의 사실주의 작가 모파상 (Guy de MauPassant1850-1893)

이 아닐까 싶습니다. 모파상은 프랑스의 노르망디에서 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어머니는 매일 같이 서로 다투었습니다. 그러다가 12살이 되던 해에, 이혼으로 어머니의 돌봄을 받고 자라야 했습니다.

그는 법과 대학에 들어갔으나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나왔습니다. 그 후 어머니의 어릴 때 친구, 보바리 부인을 쓴 작가 플로베르에게 문학 수업을 받도록 했습니다.

문학에 흥미를 느낀 그는 “여자의 일생”을 발표하여 대가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려 300 여편의 단편 소설을 통해 오 헨리, 안톤 체홉, 에드가 알렌포와 더불어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성공하게 되자 그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기와 명

예가 따라오고 돈이 쫓아오자, 욕망이 요구하는 대로 탐닉에 몸을 던졌습니다. 지중해에는 사람들이 그토록 갖기를 소망하는 요트가 있었고, 노르망디에는 거대한 저택, 파리에도 화려한 아파트를 장만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은행 계좌에는 많은 돈이 예치되어 있었고요. 그는 유럽 부자들의 로망인 요트를 타고 평소 가고 싶었던 지역을 마음껏 휘젓고 다녔습니다. 영국과 알제리, 이탈리아, 심지어 시칠리아, 그리고 오베르뉴에도 갔습니다.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요트인데, 백몇십 년 전에는 어땠을까요?

그는 가는 곳마다 인기인으로 사랑받은 미녀들을 요트에 태우고 정욕을 불태웠습니다. 그런 행동을 최고의 즐거움으로 삼았습니다. 놀랍게도 그

가 쓰는 글을 대중들은 좋아했고 그의 책들을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는 동료들이 시샘할 정도로 대단한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쾌락에 빠져 살던 그에게 어느 순간 매독이 찾아왔습니다. 어찌면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릅니다.

놀랍게도 당시만 해도 매독은 치료 약이 개발되지 않았던 때이었습니다. 고로 매독균의 공격으로 그는 반미치광이가 되어갔습니다. 매독균이 뇌로 침투하였기 때문입니다. 고통이 너무 심하게 되자 결국 종이 자르는 칼로 스스로 목을 그였습니다. 구사일생으로 생명은 구했으나 그 여파로 정신병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일 년 동안 알 수 없는 말을 혼자서 지껄이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겨우 43살의 한창 젊

은 나이에 말입니다. 그의 묘지에는 “나는 모든 것을 갖고자 하였으나 결국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은 시대, 같은 나라에 살았던 화가 반고흐(Vincent van Gogh1853-1890)는 성공과는 거리가 너무 멀어 스스로 좌절하여 자살했는데, 모파상은 너무 성공하여 잠깐 누리다가 몸 쓸 병에 걸려 미쳐서 죽었습니다. 두 사람이 생전에 교제하였더라면 어찌 되었을까 싶습니다. 고흐는 자살했다고 교회에서 장례식도 거절하여 겨우 몇 지인들의 주선으로 공동묘지로 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묘지에는 “반 고흐”라는 이름만 겨우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공이나 실패도 어떤 사람에게서 별것 아닌 것 같습니다. chiesadiroma@daum.net

푸/른/초/장

손영규 목사

(경주 새교회 리더 목사, 소망병원 원장, GAMA선교회 대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도전하십니다! 사도 마태를 통하여 기록된 말씀을 보면, 우선은 갈릴리 호수의 어부인 제자들에게 도전하신 것이요, 아울러 오늘 우리 모두를 향한 크나큰 도전의 말씀입니다. 그 주님의 도전(사도 마태의 419 도전)은 동역자 될 제자들을 부르시고 세우신 것입니다.

사사기 본문 배경

사사기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도착한 이후 약 300여 년간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온 이후, 그들은 아직 강력한 중앙 정부를 세우지 못하였고, 12지파로 나뉘어 각기 분배받은 땅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이스라엘의 각 지파와 가나안 사람 및 블레셋 사람들과 싸움이 그칠 날이 없었습니다. 이 혼란한 시기는 여호수아로부터 위대한 선지자이며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에 이르기까지 대략 300여 년간을 말합니다.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곤경을 당할 때마다 그 위기를 극복하도록 ‘이스라엘의 재판관들/지도자들’을 보냈는데 그들이 바로 ‘사사들’입니다. 이 기간에 크고 작은 사사 12명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던 것입니다.

1. 삼갈 -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무명의 용사/Nobody)

삼갈은 이스라엘의 12명의 사사들 중 가장 작은 사사에 속한다고 보여집니다. 그의 활동에 대해서는 사사기는 오직 한 절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출신지와 활동사항 그리고 그의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도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단지 드보라의 노래 속에서 한번 언급될 뿐입니다(삿5:6). 그는 그저 평범한 소말이꾼 목동 Nobody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삼갈 역시 후반 절에 묘사된 것같이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는 언급에서 그 역시 분명한 사사 중의 한 사람이었던 것을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칭호는 중요한 것입니다. 한 사람에 대한 칭호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칭호가 분명히 중요한 것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그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이며(to be), 그리고 ‘어떤 일을 했느냐’(to do) 하는 것이 의미 있고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삼갈이 바로 이러한 점을 깨닫게 해

한 삼갈의 손에는 소모는 막대기 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약 2.4m 가량의 긴 나무 막대로 한 끝에는 작은 못이 있었으며, 다른 끝에는 작은 쇠불이가 붙어 있어 짐승을 모는 도구로, 때로

주님의 말씀에 인생을 걸고

마태복음 4:19, 사사기 3:31



줍니다. 삼갈! 그는 시시하고 별 볼일 없는 사람(Nobody)이었습니다. 그러나 시시한 자들을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겸손케 하십니다.

2. 삼갈 - 그는 무엇을 가졌습니까?(소 모는 막대기-사역의 도구)

사사 시대는 철기 시대가 시작되는 직후였습니다. ‘철’이라고 하는 이 강력한 금속이 인간의 생활 속에 등장함으로써 농기구와 무기를 새롭게 혁신시켰습니다. 소아시아의 히타이트(헷) 족속들이 BC 14세기에 처음으로 철제 무기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들은 당시에 강력한 국가로 등장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으로 들어 왔을 때인 BC 13세기 경에는 가나안으로 이미 들어온 블레셋인들도 철기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아직도 청동기와 놋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기구를 위해 조그마한 쇠불이를 구하려 할 때면 블레셋 사람 대장간에 가서 겨우 부탁할 수밖에 없었지만 블레셋인들은 이미 많은 철제 무기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침략을 받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 때에 일개 목동에 불과

한 농기구로 이용하였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소모는 나무 막대기가 철제무기를 상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비록 보잘 것 없는 막대기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실 때에는 놀라운 위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슨 도구인가? 가 아니라, ‘누가 사용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성경을 통하여 삼갈의 전투와 비슷한 전투를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역시 손에 막대기 하나 들고 블레셋 군대 앞에 당당히 선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당시 다윗은 나이 어린 무명의 청년(Nobody)이었고 골리앗은 신장이 290cm나 되는 어려서부터 용사였습니다. 그러므로 사울 왕은 다윗에게 골리앗을 능히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삼17:33). 골리앗은 57Kg이나 되는 갑옷을 입었고 창자루는 놋으로 된 베히체 같은 것이었으며, 창날이 6.8Kg이나 되는 철로 된 단창을 어깨 사이에 매었고, 허리에는 칼을 찼고, 손에는 긴 창을 들고 나왔습니다(삼상17:5-7). 그러나 다윗은 한 손에는 막대기를 잡고, 또 한 손에는 돌멩이를 들고 나아갔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본 골리앗은 이르기를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오라 내가 네 고기를 공중의 새들

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전력상 비교도 안 되는 전투에서 다윗은 보잘 것 없어 보이지만 강력한 위력을 발휘한 돌멩들로 용장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신앙생활은 영적 전투입니다. 악한 사탄 마귀는 골리앗처럼 다가올 것이고, 그 줄게 악령 귀신들은 블레셋 군대들처럼 때 거리로 달려들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존재이며, 어떤일을 하고 있습니까? 혹시 어느 학교에서 공부하거나, 강의하고 있습니까? 조그

마한 가게를 꾸리고 있습니까? 그다지 알려지지 않은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까?

3. 삼갈 - 그는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하나님의 사역자-이스라엘의 구원자 사사)

저는 본문을 읽어 가는 중에 또다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삼갈이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소말이꾼이거나 일개 농사꾼에 지나지 않았던 그가 이스라엘의 열두 사사의 반열에 서게 된 것입니다. 저에게 은혜의 소낙비같이 다가온 말씀은 ‘그도’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본문은 삼갈도 이스라엘을 구원한 12명의 사사 중의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히브리어 3인칭 대명사 ‘후’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한 용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삼갈 ‘그’가(그 부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도 ‘집사/권사/장로’, ‘전문가’, ‘사장’, ‘학생’, 그리고 그 어떤 명칭이나 직위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소모는 막대기’에 불과합니다. 교회나 사회에서의 그 어떤 직분이나 직위도, 권력이나, 학력이나, 재력이나, 인맥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시한 자들이라도 그 측량할 길 없는 은혜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를 도구로 사용하실 때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세우시고, 쓰시겠다’고 하심에 즉시 순종하는 것이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비록 새끼 나귀나 늙은 나귀라 할지라도 말입니다(마 21:2-3). 이 시시한 자들을 주께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당신의 한 작은 막대기로 쓰시겠다는 사실 앞에, 우리들은 다만 감격할 수밖에 없고, 주님께 쓰임 받았다는 그 은혜만으로도 감사할 따름인 것입니다. 이제 저도 또다시 주님의 부르시는 말씀에 인생을 걸기로 했습니다. 이제 저의 나이가 72세입니다. 인생의 겨울 길목에 들어선 것입니다. 제 친구들 대부분이 은퇴하고, 등산이나 살살 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30대에 저를 부르셔서, 의사로, 선교사로, 교수 요원으로 훈련시키셨고, 40대에 교회 장로로, 대학교 교수로, 그리고 중국 의료선교사로 세우셨고, 그러다 중국 선교지 현장에서 체포되어 추방당하여 유리 방황하게 하시다가, 나이 들어 고향에 돌아가서 조그마한 개인병원을 열고 살아가게 하셨는데, 다시금 도전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의료선교예의 새로운 장을 열기 위해서, 한의학을 통한 ‘한의 의료선교의 장’을 캄보디아 땅에 열라는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치유와 생명의 빛을 비추라고! 킬링필드를 힐링필드로 바꾸라고! 도전을 주신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을 정리하고 준비해서 2026년에는 캄보디아 한의 의료선교를 위해 다시 선교지로 나아가길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행1:8) 어디가 ‘땅 끝’입니까? 이 단어는 ‘대표 단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해서 영어 NIV 성경은 이를 번역하기를 ‘the Ends of the Earth’ 로 복수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 끝’이란? 각각 부름을 받은 자들이 그 사명을 담당하고 있는 모든 곳입니다. 중국 선교사는 중국이, 캄보디아 선교사는 캄보디아가, 각기 부름을 받고 사명이 있는 곳이 땅 끝입니다. 시시한 Nobody 우리들을 부르시어, Somebody 되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인생을 걸어봅시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더라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잘했다, 수고했다! 나의 잔치 자리에 어서 와서 앉으렴!” doctoryks@hanmail.net

토요칼럼**김한맥 선교사**
(문화동원연구소 대표)**여명(黎明)의 때**

지난 연말부터 새해가 되도록 몇 번이나 되짚어 묵상하는 말씀이 예레미야 29:11이다. “여호와와 말씀이나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니니.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토록 생생한데 그 말씀이 우리가 처한 어두운 현실에 적용이 되지 않아 여전히 어둡고 암울하기만 하다.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들이 자꾸만 되풀이 되는 것 같고 하늘의 뜻에 맡기며 억지로라도

움켜쥐려 하는 자유는 점점 더 작아지지만 한다. 뉴스나 시사를 보지 않으려고 눈을 돌려도 고래싸움에 새우 등이 터질 수밖에 없듯 불안을 예고하는 영향이 날벼락처럼 덮쳐오기도 한다.

사방이 막히면 하늘이 열린다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소망이다. 그래서 또 기도하게 된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 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대상 4:10)는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에베에셀이 되어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

사람은 문제를 만드나 그것을 해결하시는 분은 언제나 하나님이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기에 차마 버리실 수가 없어 끝까지 책임을 지시는 것이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지 재앙이 아니라고 말씀하신다. 지금 우리가 느끼고 겪는 이 암울함이 여명(黎明)이라고 암시하신다. 여명은 밝아오기 직전의 상태로 가장 짙은 어둠으로 세상을 덮어보려 하지만 그 시간은 짧다. 태양이 붉게 타며 떠오르면 여명은 아침이슬과 안개처럼 자취도 남기지 못하고 스러져버린다.

우리가 느끼는 불안과 염려도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지 재앙이 아니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점도 남기지 않고 녹아져야 한다. 그러면서 야베스처럼 기도할 때이기도 하다.

어떤 노인이 끌고 가던 늙은 당나귀가 그만 매마른 우물에 빠졌는데 그 노인은 슬프게 울부짖는 당나귀를 구할 힘이 없어 동네 사람들을 불러 파묻으려고 했다. 여러 사람들이 삼을 가지고 나와 우물을 메우기 시작하자 졸지에 생매장을 당하게 된 당나귀는 더욱 애절하게 울부짖었다. 우물이 점점 메워지면서 울부짖던 당나귀소리가 잠잠해져 삼으로 흙을 퍼붓던 사람들이 궁급하여 우물 속을 들여다보니 당나귀는 쏟아지는 흙을 필사적으로 털어내며 흠뻑 위로 올라서 있었다. 결국 파묻힐 뻔한 당나귀는 파묻으려던 흙을 딛고 우물에서 빠져나오게 되었다.

때론 어둡고 암울한 실체들인 비방과 모함과 굴욕, 능멸과 시기, 질투와 불평들이 곤경의 우물에서 벗어나는 전회위력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다.

쥐구멍에도 별들 날이 있다고 세상에서 말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며 자녀인 그리스도인들이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은 하나님의 원하심이 아니다. 이럴 때일수록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할 수 있어

야 되겠다. 영국의 시인 바이런이 케임브리지 대학 종교학 강의를 들을 때 교수가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내용을 신앙적으로 구상하라는 문제를 냈는데 많은 학생들이 열심을 다해 종이를 채워갔음에도 바이런은 주어진 시간이 거의 다 되도록 눈을 감고 있다가 단 한 문장을 적어 제출을 했다. 그 내용인즉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을 붉혔더라’였다.

야베스의 기도를 하나님이 그대로 허락하신 것이 바로 이런 깨달음이 아니었을까 싶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옴은/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로 이루리’라는 찬양처럼 주님의 마음을 본받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 낸다면 우리에게 임하는 인위적인 어둠과 곤경에서도 자유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진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게 만들어주시실 것이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여명의 때라면 우리는 더 이상 불만이나 불평을 할 시간이 없다. 등을 들고 신앙을 맞으려 나간 열 처녀의 비유를 생각할 때인 까닭이다. “그 중의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 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지고 갔더니…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방간 사이에 신앙이 오히려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는 말씀을 따라 지금은 등과 기름을 준비할 때이다. 꺼여 있는 자들이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다. hanmackim@hanmail.net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기독교인 56% “디지털 자원·기술 제자훈련에 활용해야”**

코로나19를 거치며 온라인예배나 성경 어플리케이션(앱) 등 교회의 디지털기술 적용 범위가 넓어진 가운데 미국의 성인 크리스천 대다수가 디지털 활용이 교회 사역 등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기독교 여론조사업체인 바나그룹은 지난해 5월 성인 크리스천 600명을 조사해 지난 14일(현지시간) ‘기술과 교회’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 기독교인 10명 중 7명은 ‘온라인 헌금’(75%) ‘기독교 자료 웹사이트 등 리소스 허브’(74%) ‘SNS 아웃리치(선전)’(70%) 등이 교회에 도움 된다고 응답했다. 또한 응답자 절반 이상은 교회가 화상상담(59%) 디지털 제자훈련 자료(56%)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표했다.

다만 디지털 기술 활용에 대한 목사들의 태도는 상대적으로 보수적이었다. 바나그룹이 지난해 1월 미 개신교 목사 278명에 대해 별도 조사한 결과에선 5명 중 2명(42%)만 ‘교회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한국에서도 디지털 기술 활용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다. 목회데이터연구소(목데연)가 최근 발표한 ‘한국교회 트렌드 2025’ 10가지 안에 꼽힌 유반젤리즘(유튜브 신앙생활·You-vangelism), 스피리추얼 Z세대(20대 청년세대)가 한 예다. 목데연은 “Z세대 크리스천은 디지털 환경에서 자라나 디지털 매체를 통해 신앙적인 자료에 접근하고 교회와 사회적 가치관을 조화시키려 한다”며 “이들의 특성과 관심사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트랜스젠더 선수, 여성 스포츠 참여 막을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식 하루 전인 19일 워싱턴DC의 캐피털원 아레나에서 열린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 승리 집회’에서 “트랜스젠더 운동선수들의 여성 스포츠 참여를 막겠다”고 강조했다. 대선 과정에서 내걸었던 공약 실행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트럼프는 이날 “트랜스젠더의 광기를 멈추고 학교에서 완전히 제거하겠다”며 “남성이 여성 스포츠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며 이를 굳건히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경기장에 모인 지지자들은 환호로 응답했다.

트럼프는 공화당 대선 후보 시절 기독교 신앙과 성경적 가치관에 기반해 낙태와 동성애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강조해 왔다. 이와 관련해 공립학교의 트랜스젠더 이념 배제, 부모 동의 없는

미성년자의 성전환 치료 금지, ‘여성으로 성전환한 남성’의 여성 스포츠 참여 금지 등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지난 14일 미국 하원은 공화당 주도로 여성으로 성전환한 사람이 여성 스포츠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스포츠 여성과 소녀 보호법’을 찬성 218표, 반대 206표로 통과시켰다.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즉시 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복음연합 신임 회장에 마크 브로갓 목사

미국 복음연합(TGC)이 신임 회장으로 마크 브로갓(53) 인디애나주 칼리지파크교회 목사를 선임했다가 최근 밝혔다. 브로갓 목사는 지난해 출간한 ‘기다림은 낭비가 아니다’와 2020년 작인 ‘질은 구름, 더 깊은 금홍’(두란노)의 저자로 한국에도 이름을 알렸다.

시더빌대를 거쳐 그랜드래피즈신학교를 졸업한 브로갓 목사는 2008년 현 교회에 부임해 지금까지 목회 중이다. 2018년 TGC에 합류했으며 재작년부터는 이사회 구성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오는 3월 회장 임기를 시작하는 그는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새롭게 하고 연합하는 데 TGC보다 더 전략적인 사역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후안 산체스 TGC 이사장은 “한 교회서 오랜 기간 봉사한 브로갓 목사는 목회자 등 교회 지도자를 격려하는 동시에 이들의 사역을 지원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2005년 설립된 TGC는 올해 창립 20주년을 맞는다. 브로갓 목사는 “20년간 TGC는 헌장 목회자와 사역자를 충실히 지원해왔다”며 “이 중요한 사역을 다음 국면으로 이끄는 역할을 맡을 수 있어 영광”이라고 밝혔다.

TGC는 그간 DA 카슨 트리니티복음주의신학교 명예교수와 팀 켈러 뉴욕 리디머장로교회 설립목사 등 미국 개혁주의 신학계와 복음주의 교회를 대표하는 신학자와 목회자들이 이끌어왔다. 현재는 목회와 관련한 기사와 영상, 팟캐스트 등의 자료를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다.

“캐나다·멕시코에 25% 관세, 내일부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직후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고율관세 부과 방침을 확인했다. 다만 부와 시점은 ‘취임 후 즉시’가 아닌 다음 달 1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진행된 행정명령 서명식 중 “멕시코와 캐나다는 엄청난 수의 이민자와 마약이(미국에) 들어오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25%의 관

세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며 “(목표 날짜는) 다음 달 1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유럽연합(EU)에 대해서도 무역 적자를 거론하며 EU가 관세를 피하고 싶다면 미국산 에너지를 더 많이 수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럽은 미국산 자동차도, 농산물도 거의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는다. 미국은 유럽산 자동차와 농산물을 수입한다”며 “우리는 관세로 적자를 바로잡을 것이다. 유럽이 이를 피하고 싶다면 미국산 석유와 액화천연가스(LNG)를 사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발언에 당사국들은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특히 캐나다와 멕시코는 실제 25% 관세가 부과되면 치명적인 타격이 불가피하다. 멜라니 졸리 캐나다 외무장관은 “관세 방지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면서 “보복 조치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멕시코도 트럼프의 요구를 반영한 이민자·마약 단속 강화와 함께 보복 관세 가능성을 언급하는 두 트랙 전략으로 대응하고 있다. EU는 더 많은 미국산 에너지를 구매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다만 트럼프는 취임 전부터 캐나다·멕시코와 함께 관세 폭탄 대상으로 지목해온 중국에 대해선 이날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한 소식통은 블룸버그에 “트럼프가 협상 모드로 전환하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또 다른 거래를 체결하려는 열망을 반영한다”고 말했다. 반면 월스트리트저널은 “중국에 대한 고율관세 부과 등의 공약을 어떻게 이행할지를 놓고 행정부 내에서 여전히 격렬한 논쟁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대만 남부 타이난서 6.4 지진…TSMC 직원 긴급대피

대만 남부 타이난시 인근에서 21일 0시 17분쯤 규모 6.4 지진이 발생했다. 대만섬 전체와 중국 본토 일부에서도 진동이 감지됐다. 대만 중앙통신과 AP통신 등에 따르면 대만 기상국은 진원지가 치아이현청에서 남동쪽으로 38km 위치이고 깊이는 10km였다고 밝혔다. 미국 지질조사국은 지진의 강도를 6으로 측정했다.

대만 소방국은 이번 지진으로 사망자는 보고되지 않았으며 27명이 경미한 부상으로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밝혔다. 그중 6명은 타이난시의 붕괴된 주택에 갇혀있다 구조됐다. 인근 타이난 과학기술단지에 있는 세계 최대 파운드리 기업인 TSMC 공장 직원들은 긴급 대피했다. TSMC는 조업을 일시 중단했다가 재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지진으로 대만섬 전체에 강한 진동이 발생했다”며 “(중국 본토인) 푸젠성의 취안저우·샤먼·푸저우에서도 눈에 띄는 진동이 보고됐고 저장성의 닝보·항저우, 상하이에서도 진동을 느꼈다”고 전했다.

이번 지진은 필리핀해판과 유라시아대륙판의 충돌로 발생했다. 대만 당국은 3일 이내에 규모 5.0 이상의 여진이 발생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대만은 태평양 ‘불의 고리’에 위치해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편이다. 지난해 4월에는 대만 화롄 동부 산악지역에서 25년 만에 규모 7.4의 강진이 발생해 13명이 사망하고 1000명 이상이

다쳤다.

당시 TSMC를 포함한 반도체 기업의 생산이 일시 중단되며 글로벌 공급망까지 차질이 생겼다. 대만은 세계 반도체 생산의 60%, 첨단 반도체 생산의 90%를 점유한 핵심 공급지다.

트럼프 ‘바이든 정부 78개 조치 철회’ 행정명령 서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파리 기후변화협정 재탈퇴를 포함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실내 취임식을 마친 뒤 지지자들이 모인 인근 실내 경기장 ‘캐피털원 아레나’를 찾아 연설하고,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시행된 78개 조치를 철회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에는 파리 기후변화협정 탈퇴, 정부의 검열 금지 및 언론의 자유 복구, 정부 기관의 불가대응 총력 지시 등이 포함됐다.

지지자들의 박수를 받으며 각종 행정명령에 서명한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이 이렇게 하는 것을 상상할 수 있었느냐”고 외쳤다. 지지자들은 “유에스에이(USA)”를 연호하며 환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을 마친 뒤 여러 팬을 객석으로 뿌렸다.

中관영언론, 트럼프 취임 앞두고 “대화와 협력이 유일한 선택”

중국 관영 언론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중·미 양국의 대화와 협력을 거듭 강조했다. 중국의 핵심 이익인 대만 문제에 대해서도 미국의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신화통신은 20일 ‘중·미 관계를 올바른 방향으로 유지하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역사가 보여주듯이 대화와 협력만이 양국에 유일한 선택”이라며 “미국은 새로운 출발점에서 제로섬 사고를 버리고 중국과 관계가 안정적이며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경로를 통해 더 큰 진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선의를 갖고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두 강대국에 의견 차이가 있는 것은 당연하며 중요한 것은 이를 적절히 관리하는 것”이라며 “양국은 앞으로 서로의 핵심 이익과 주요 관심사를 존중하면서 혼란하는 문제의 건설적인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만 문제에 관해선 “중국의 국가 주권과 영토 보전에 관한 문제”라며 “미국 새 행정부는 신중하게 접근하고 상호신뢰를 훼손하거나 양국 관계를 불안정하게 하는 행동을 자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도 이날 사실에서 “역사는 중·미 양국이 협력을 통해 이익을 얻고 대립을 통해 손실을 본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보여줬다”면서 “중·미 정상의 지도 아래 양국이 새로운 출발점에서 더 큰 진전을 이루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개혁주의 윤리학(9)

이길호 목사

(뉴욕 성실장로교회 원로)



VI. 신약 크리스천들은 구약의 윤리적 명령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이 부분은 Wayne Grudem의 Christian Ethics 제 8장을 참조했다)

A. 신약 크리스천들에게 적용되지 아니하는 구약의 법

5. 크리스천들은 구약의 시민법 (civil law) 을 그대로 따를 필요가 없다.

모세언약 아래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열방 가운데 지리적으로, 정치적으로 구별된 이스라엘 민족이었다. 하나님께서 사법, 행정을 비롯한 다양한 규범을 주셔서 그 나라를 다스리게 했다. 그러나 신약의 새 언약 하에서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특정한 민족과 지역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모든 민족들에게 확장된다.

신약 성경은 기독교인들이 특정한 지역이나 특정한 정치적으로 구별되는 국가를 만들라는 명령은 없다. 신약은 구약의 이스라엘과 같은 신정 국가를 만들라는 언급은 없다. 오히려 신약성경은 크리스천들에게 자기들이 속한 국가의 정부에 순종하라고 한다.

바울은 로마서 13장에서 이렇게 권고한다. “13:1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2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3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4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네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5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6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7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그리고 베드로는 벤전 2장에서 이렇게 권면한다. “13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14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17 모든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벤전 2:13-14, 17)

롬 13:1-7에서, 바울은 로마 정부에게 복종하라는 권면을 하는데, 이것은 구약의 시민법을 폐기하라는 의미를 함축한다 (Thielman, The Law and the New Testament, 169).

그리고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국가를 다스리는 정부와 교회를 다스리는 치리 기관은 전적으로 서로 다르

다. 초대교회의 교회의 지도자 (직원) 들을 로마 정부가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 교회에서 선택하였다. 그러므로 바울은 디모데와 디도에게 장로들을 선택하는 지침을 전했다 (딤후 3:1-7; 딤했 1:5-9). 바울은 교회를 다스리기 위하여 로마 정부의 어떤 도움도 받지 아니했다. 교회와 국가는 서로 다른 형태의 치리 형태를 가졌다.

이것은 구약에서 모세가 정한 시민법과는 전적으로 다르다. 모세, 사무엘, 다윗, 솔로몬 등 구약의 지도자들은 이스라엘 국가를 다스릴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도 다스렸다. 구약에는 국가와 교회가 분리되지 아니되었다.

그러나 신약은 다르다. 신약은 교회와 국가는 구별된 두 기관이다. 토마스 R. 슈라이너 (Thomas R. Schreiner)는 이렇게 말한다. “구약 이스라엘에 주어진 시민법은 오늘날 국가의 규범으로 계속적으로 기능해야 한다는 사상은 잘못이다. 신자들은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왜냐하면 구약의 율법은 신정 국가로서의 이스라엘에게 주어졌기 때문이다 (The law was given to Israel as both a political and ecclesiastical community). 오늘날 어떤 나라도 이스라엘을 대신할 수 없다. 어떤 나라도 구약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나라가 없다 (Thomas R. Schreiner, 40 Questions about Christians and Biblical Law, p.224).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이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라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마 22:18-22)

예수님께서 “가이사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의미는 우리가 국가에 세금을 내는 것은 옳다라는 말씀이다.

예수님의 교훈은 로마 정부가 세금을 거두는 것은 바른 일이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국가의 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신다.

그리고 “가이사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는 세상의 권력자 가이사사의 통제를 벗어난 우리의 영역이 있음을 지적한다.

그러므로 세상 정부가 국법을 정하여 구약 이스라엘에 규정된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 예를들면 구약에서 규정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죽이라는 시민법을 오늘날 국가에서 구약 이스라엘에서 집행한 것과 같이 그 법을 집행할 수 없다. 그리고 또한 세상 국가의 법을 교회의 영적인 일에 대해 집행할 수 없다.

B. 신율주의 (Theonomy) 비판

신율주의의 다른 이름은 기독교 재건주의(Christian reconstructionism)이다. 그렉 L. 반센 (Greg L. Bahnsen)이 1977년 <Theonomy in Christian Ethics> 책을 출판함으로써 신학계에서 신율주의 (Theonomy)가 큰 이슈로 등장했다. 그리고 Five Views on Law and Gospel을 통해 그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변호했다.

반센은 새 언약 아래서 모세의 율법 가운데 제사법 (의식법)은 폐지되었지만, 그러나 도덕법과 시민법은 새언약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신율주의자들은 오늘날 국가와 사회에서도 구약의 시민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반센의 사상에는 많은 문제점이 존재한다.

“신율주의 (Theonomy)”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게리 놀스 (Gary North), 그렉 반센 (Greg Bahnsen) 또한 R. A. 러시두니 (Rousas John Rushdoony) 등이다. 1995년 미국의 정통장로교회 (Orthodox Presbyterian Church)에서 “

신율주의 (Theonomy)”에 대해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교회와 국가는 모두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별개의 구별된 권위를 지닌 기관이다.
2. 교회의 권위는 영적이며 (즉, 하나님 나라의 열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Q. 84 & 85 참조), 교회의 치리는 영적인 사항을 처리하는데 국한된다. 교회의 최종 징벌은 파문이다 (excommunication).

3. 그러나 국가의 권위는 물리적인 것이다 (즉, 칼의 권세, 롬 13:4). 국가는 법률 준수를 강제하기 위해 물리적 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 그 권한의 궁극적인 행사는 사형을 시행할 수 있다. 국가의 그 권위의 영역은 정의 (justice)에 있다. 국가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주체가 아니다.

4. 국가 권력은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그들을 반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이다 (롬 13:2).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통치할 의무가 있다. 하나님의 법은 모든 인류의 궁극적인 표준이다 (God’s law is the ultimate standard for all mankind).

5. 모든 사회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해야 하며,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이러한 것이 얼마나 실현되기를 기대하는지에 관계없이, 우리는 사회의 빛과 소금으로 역할을 감당해야 하며, 이를 위해 기도하고 노력해야 한다.

6. 교회가 사회와 국가에서 공의와 경건을 증진시키기 위해 사용해야 하는 수단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다. 오직 성령의 역사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 있다 (롬 8:1-14). 교회는 사회의 불의와 악을 지적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것이 교회의 선지자적인 사명이다.

(다음호에 신율주의 (Theonomy) 비판이 계속됩니다)
KHL0206@gmail.com

신앙독후감 공모전 우수상

하나님의 마음으로 산다는 건

〈마음을 따르지 않을 용기〉를 읽고



신나리 집사

(얼바인 주교회)

오래전 나는 인생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말로 표현하기고 통스러운 일이었다. 행여 누가 알아차리길라도 할까 은둔하며, 수치와 거절감으로 나는 더 이상 이 세상에 필요없는 존재라고 생각했다. 새벽 공기 중에 떠 있는 안개처럼, 해가 뜨면 증발해 버리듯 나 역시 그렇게 사라지길 원했었다. 때로는 내 마음의 공허함을 시간과 돈을 소비하며 채우기도 했었다.

내가 처했던 상황에 대한 해석과 대처방법을 알고싶었을 때 나에게 큰 변화를 준건 나를 알아가는것과 나의 마음에 대한 공부였다. 수많은 많은 시간동안 갈피를 잡지못해 내 마음은 대로 결정한대로, 내 마음에 좋은 대로 결정하고 싶었다. 그때 나는 기적 처럼 지금의 목사님과 멘토에게 닿을수 있었다. 처음부터 순탄했던 것은 아니다. 때때로 내 곁에 보내 주신 사람들이 거짓이라 부인하며 당장의 고통스러운 상황과 고통스러워 하는 나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고 행복하고 싶었다. 그리고 수많은 실패의 연속과 사소한것들로 부터의 승리까지. 어두워 걷는것조차 힘들었던 기나긴 터널 안에서 빛을 인식할 때즈음 이 책을 만나게 되었다. 내 마음을 따를 용기가 아닌 내 마음을 따르지 않을 용기를 내는 것, 읽는 동안 내 마음을 들킨것 같은 아찔함과, 때때로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

역사의 조류 속에서 인본주의는 언제나 많은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왔다. 그들은 나에게 집중하며 살아가는 삶이 가장 자연스럽고 나다운 삶이라고 말한다. 나의 감정이 이

끄는대로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사는 삶! 얼핏 들으면 그럴듯한 말이다. 여유롭고 근사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시간이 지나도 강렬하고 화려한 삶이 계속될 것이라고 우리를 속인다. 이 책의 저자 사디어스 윌리엄스 교수는 부패한 나의 마음을 따르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이며 이러한 현상은 비신자들 뿐 아니라 신자들에게도 만연하다고 지적한다. 내 마음을 따라사는 삶이 가장 나다운 삶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은 자아 숭배이며 그런 삶은 오히려 나다운 것과 멀어지는 길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 애초부터 인간은 스스로에게 만족하고 도취되어 살도록 지어지지 않았으며 타락한 내 마음은 반드시 나를 배신하기 때문이다. 또한 나에게 집중된 마음은 자연발생적으로, 나를 드러내고 내가 가진 것으로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은 마음으로 흘러가기 마련이다. 그 마음이 확장되면, 명예와 권력에 가치를 두고 그것에 집중하는 불행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

나 역시 그랬다. 저자의 말처럼 행복을 내 밖에서 찾기에 급급했다.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곳에 늘 시선을 두고, 마음과 귀를 열어놓았다. 내 눈에 보기 아름다운 것들로 나를 포장하고, 적당한 숨길 건 숨겨가며 완벽한 삶을 꿈꿨다.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을 두지 않았으며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어떤 것을 따르지 않아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해보는 적이 없었다. 이따금씩 내 마음에 지나치게 치우쳐 있다고 느낄 때면, 하나님 마음이 자리할 곳 없는 내 마음을 그저 허망

하게 바라볼 뿐이었다. 환경과 사람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해 가정과 직장, 교회에서 나에게 허락하신 리더나 멘토들이 주는 조언을 끈대들의 지적이라 여기며 가볍게 넘겨버릴 때도 있었다. 그렇다. 나는 혼자만의 성을 쌓고 있었다. 내 기준이라는 벽돌을 단단하게 만들어 내고 집과 욕심이라는 시멘트를 발라 떨어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쌓아 올리고, 율법이라는 강한 지렛대로 받쳐가며 지켜온 바벨탑을 무너트리시기까지 인내하시고 마음 아파하셨을 하나님을 생각하면 죄송하고 그저 감사할 뿐이다.

저자의 말처럼 나의 마음을 따르는 행위 이전에 나의 마음은 이미 존재적으로 부패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때가 있었다. 신앙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내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져 답답할 때가 많았다. 오랜 세월 내 마음대로 보고, 듣고, 행했던 생활 패턴은 학습된 상태로 남아 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 언제든 쉽게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는 내 모습에 절망했다. 절망할수록 내 마음이 시키는대로 행동하며 감정과 생각이 나를 끌고가는 걸 허락했다. 그마저도 성에 차지 않으면 물질을 허비하는 것에 몰두했다. 공포 영화나 쏫츠, 막장 드라마나 욕설을 내뿜는 음악을 들으며 잠시잠간이 주는 쾌락에 빠져 시간을 낭비했다. 누군가에게 비판 받으면 화를 내면서도 비판을 하는 입장이 되면 거침없이 날선 말을 뱉어냈다. 내가 편하게 느끼는 모임과 장소를 고집하기도 했

다.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상처를 주는 삶이 반복되었다.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말인가?! 이 시대에 낙오자로 남아야하는가? 뒤쳐진 자라는 낙인은 누구에게 보상 받아야 하며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나? 내 마음에 집중할수록 나는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 구분 하려했다. 나의 안전을 위해 실력을 키우고, 실력을 키우기 위해 200%의 에너지를 쏟아붓기도 했다. 도저히 내 능력으로 되어지지 않는 것에는 다른 사람을 탓하기도 했다. 정체성을 비난하며 이 모든 원인은 나의 불우한 환경이라 비판하며 합리화 하기도 했다. 더 높은 강도의 비난, 원망이 큰 산이 되어 넘을수 없을 땐 하나님을 떠나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다.

어느 날, 몬스테라 라는 식물을 선물로 받게 되었다. 수중재배가 가능했던 몬스테라는 수많은 뿌리를 내리며 자라났고, 돌보는데 시간과 정성을 들이며 식물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때부터 자연과 생명을 지닌 것들에 조금씩 시선이 갔다. 저자는 말했다 경외심을 갖는다는 건 나보다 더 큰것을 접할 때 즉, 하나님과 자연을 만날 때라고.

답일 목사님께서 “인생을 살아가다보면 누구에게나 몇 번의 중요한 만남이 있으며 그 중 가장 중요한 만남은 나 자신을 만나는 것과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되는 순간, 진짜 나와서 만남이 시작됩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로 감시하게도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대로 내가 철저히 부패되었음을 알

아차리고, 내 안에 섰던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인정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 “그렇다면 부패한 마음의 기본값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이 남는다. 때때로 순간의 쾌락이 영원할 것이라는 거짓에 속는다. 타인의 시선이 두려워 나를 포장하고 과장된 나를 진짜 나라고 믿는 어리석음에 빠진다. 하루에도 수십 번 과도처럼 일어났다 사라지는 나의 감정과 생각의 충동을 발견한다. 그러다 잠시 일어났던 복잡한 생각들이 기억조차 나지 않을 때나 뿔뿔이 기뻐던 찰나의 감정, 오래 전 누군가를 향한 미움이 희미하게 느껴질 때면, ‘그래.. 이렇게 실재 없이 변하는 내 마음에 따라 선택하는 것은 완벽할 수없지.’ 속으로 되뇌이며 마음을 다잡는다. 이 책을 통해 내가 내린 결론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내 안에는 그분의 숨결이 있고, 그분의 마음이 있다. 나의 생각과 감정은 말씀으로 영의 지배를 받아야하고, 의지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지배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수치심은 나를 열심히 살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 수치심은 두려움에서 비롯되었다는걸 깨달았다. 삶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넘을 수 없는 나의 한계를 만나 깨어지는 경험들은 나의 마음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것 같다. 그런 삶이 얼마나 용기 있는 삶이고 가치 있는 삶인지 깨닫는다. 감추어진 보석 처럼 찾아내기 어렵긴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도 있다. 형통하고 잘되는 사람은 자기 내면에서 답을 찾지 않는다는 저자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내 안에 답이 없음을 알고, 기도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형통하다. 하나님께로 달려가 내 감정과 생각을 그대로 고백하며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어린 아이 같은 믿음. 내가 묵상 중에 알게 된 하나님은 부분적이며 나는 결코 하나님을 완전히 알 수 없다는 겸손한 믿음. 나 또한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이길.. 내 삶이 그분으로 인해 형통하길 원한다.

독후감 공모전을 준비하면서 책을 읽고, 글을 쓰는 시간 동안 설레고 행복했다. 그런데 막상 마음을 앞두고 내 글이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된다고 생각하니 망설여졌다. 교회 북클럽에서 독후감 연습을 여러 번 했음에도 뭔가 부족함과 아쉬움이 느껴졌다. 아마도 더 잘쓰고 싶은 마음이 앞섰나보다. ‘하나님, 이번 독후감 공모를 계기로 계속해서 글을 쓰고 싶어요. 그 글들을 모아 책도 한 권 내고 싶어요’ 라고 솔직하게 내 마음을 고백하고 나니 알 수 없는 용기가 생겼다.

나 자신과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에 끝이 없듯이 내 마음을 따르지 않을 용기 또한 단번에 생기는 것이 아님을 이 책을 통해 깨닫게 되었다. 마음을 내어야 한다. 용기를 내야 한다. 나의 기본값, 즉 죄인임을 마음 속에 새기고, 다른 사람들 또한 나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자주 기억하며 내 감정과 생각이 고개 드는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며 내 마음을 덮어버리는 것.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선포할수 있는 용기! 마음을 따르지 않을 용기란 이런 것이 아닐까..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씩씩하고 굳센 기운’이 아닐까.. 이 책을 통해 나도 그런 용기를 만났다. 당신도 마음을 따르지 않을 용기를 뱉수 있다고 응원해 주신 저자 사디어스 윌리엄스와 독후감 공모의 길을 열어주신 세계한기독교인론포럼 관계자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신앙칼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Give Me This Hill Country)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누구도 혼자 살아가지 않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사회생활의 가장 기본 단위는 가정입니다. 먼저 가정 생활이 건강하면 사회가 건강해집니다. 가정이 병들면 자연스럽게 사회도 병들게 되어있습니다. 가정은 늘 건강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믿음생활을 떠나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습니다. 신실한 신앙생활을 통해 믿음이 싹트고 자라고 꽃피어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열매를 잘 맺으려면 먼저 교회가 건강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국경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전혀 국경이 없어 땅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믿음 자체가 세계적이고 우주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미국이라는 하나의 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이 건강해야 합니다. 나라가 병들거나 약해지면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도 건강해야 합니다. 오늘 소개하는 갈렘은 가정이나 교회나 국가에서 건강한 85세 어른이었습니다.

마음의 건강(Mental Health)

갈렘은 마음이 늘 건강했습니다.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온 갈렘은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수 14:7)라고 하고 있습니다. 가정이나 교회나 국가가 건강할 수 있는 요소는 성실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마음이 건강해야 합니다. 마음이 건강한 갈렘은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마음이 건강한 갈렘과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민 14:8) 하였습니다. 마음이 건강하지 않은 열 사람은 "네프림 후손인 아나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민 13:33) 우리는 못한다. 안 된다. 라고 악평을 합니다. 마음이 병들었기 때문에 허튼소리를 합니다. 마음이 병든 열 사람들은 백성들의 간담을 녹게 하고 실망을 주었으나 마음이 건강한 갈렘과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마음이 병든 사람은 같은 땅을 보고도 빼박한 눈으로 본 것입니다. 말을 해도 빼박하게 하고 일을 시키면 일 처리를 빼박하게 해놓습니다. 우리는 마음이 건강해야 합니다. "마음은 은혜로써 굳게 함이 아름답고"(히 13:9) 마음이 은혜를 받으면 마음이 건강해집니다.

믿음의 건강(Faith Health)

사람이 병들면 앓는 소리를 합니다. 믿음도 병들면 앓는 소리를 합니다. 믿음이 병들었을 때 내는 소리가 원망과 불평하는 소리입니다. 열 사람의 정탐꾼은 믿음이 병들었습니다. 악평을 하고 하나님이 된다고 하셔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안 된다고 하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불안해서 울고불고하고 낙심하게 만들어 주의 일에 협력하지 않게 만듭니다. 믿음에 병든 사람은 일할 일감을 놓고도 절대로 일을 하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뒤에서 잔소리만 하는 것입니다. 믿음에 병든 사람은 남에게 피해를 줍니다. 다섯 식구가 살아간다고 할 때 식구 중에 누구 하나가 병들면 그 병든 사람이 그 가정에 유익을 주는 일이 없습니다. 손해를 끼치는 일이 더 많습니다. 믿음이 병들면 꼭 다른 사람의 믿음에 손해를 주고 상처를 주게 됩니다.

열 사람의 정탐꾼은 믿음에 병들었기 때문에 하는 말마다 부정적입니다. 말을 할 때마다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합니다. 정의의 사도로 둔갑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건강한 사람은 긍정적으로 건설적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믿음은 건강한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수 14:9) 교육 개혁가 호레이스만이 "순교자로 죽는 것 보다 순교자로 사는 것이 더 어렵다."라고 하였습니다. 순교자로 맞아서 죽는 것 보다 순교자의 정신과 신앙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는 것이 더 어렵다는 말입니다. 갈렘이 바로 이런 순교자의 정신과 신앙으로 산 사람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건강한 믿음입니다.

육체의 건강(Physical Health)

"오늘 내가 팔십오 세로되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 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수 14:11)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늘나라에서 영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빼 놓으면 기독교가 이미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목적은 하늘나라에서 영생하는 것입니다.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땅 위에서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고 가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늘나라에 가면 전도가 필요 없고 구제할 필요가 없고 봉사할 것이 없고 그저 하나님 앞에서 찬양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차용호 목사

(센터발한인장로교회)



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전도하는 일, 구제하는 일, 그 밖의 힘을 필요로 하는 남을 돕는 일들은 살아생전에만 하는 일입니다. 죽어 천국에 가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 갈렘 같이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갈렘이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이 "당신과 내가 정탐꾼들로 갈 때 40세가 아니었습니까? 지금은 내가 85세입니다. 지금 내가 85세로되 오히려 그 때보다 강건합니다."(수 14:11) 40세 때보다 더 건강하다는 말입니다.

생활의 건강(Health in Life)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열두지파의 군대들이 총동원되어 점령한 후 "너희가 가져라"하고 나누어 준 땅이 절반이 채 안됩니다. 그 때 갈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약속해준 말씀이 "내가 네 발로 밟는 땅은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점령한 땅에 "이것은 내 것입니다"하고 한 바퀴만 돌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렘은 "기름진 땅은 원하는 사람에게 다 주십시오. 나에게만 저 산지 즉 아나 자손이 살고 있는 곳을 주십시오. 특히 거기에 있는 철옹성 같은 헤브론 성을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싸워 이겨서 기업을 삼겠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결국 그는 가서 싸워 이기고 기업을 삼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땅과 피를 흘려 기업을 마련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갈렘처럼 생활이 건강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갈렘의 건강이 여러분들의 건강이 되기를 바랍니다. 갈렘같이 마음이 건강하고 믿음이 건강하고 육신이 건강하고 생활이 건강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드리고 이웃을 살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chayongho@hotmail.com

사·모·칼·럼



허양희 사모

(텍사스 오스틴 주님의교회)

틈

이십여 년 전의 일이다. 모임을 인도하며 기도 제목을 나누던 중 어떤 자매가 위가 아프다고 말해 그 부분에 손을 얹고 기도를 했다. 기도하다가 손 밑에서 뭔가가 움직이는 것을 감지하고 그것을 따라갔다. 순간 악한 영을 대적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대적 기도를 하자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났다. 그 자매의 목소리가 변했고 고성을 지르며 격렬한 반응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예수님을 믿으면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할 것이라든 생각의 방어선이 무너지는 경험이었다. 그 자매는 예수님을 영접했고 복음주의 교단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일반적인 성도였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들의 삶에 악한 영은 어떻게 틈타는 것일까? 사도 바울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에베소서 4:26-27)고 경고했다. 바울의 표현을 살펴보면 악한 영이 침입하는 길을 틈으로 말하고 있고 우리가 짓는 죄가 바로 그 '틈'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죄는 미워하는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거짓말, 비난, 분냄, 비방 등 부정적인 감정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심리학자인 로저 K. 버포드(Rodger K. Bufford)는 그의 책 <구신 들림과 상담>에서 우리가 짓는 죄가 "마귀의 영향력 안으로 들어가는 길을 제공한다"고 말한다. 위에서 언급한 자매의 경우도 어린 시절에 큰 상처를 주었던 사람을 증오하고 용서하지 않는 그 마음이 틈이 되어 마귀의 침입을 허용하게 되었음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

마귀에게 틈을 주는 죄를 지었을 때는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성결함을 입어야 한다. 죄는 하나님과 관계를 멀어지게 하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하여 죄에서 돌아서는 회개는 매우 중요하다. 요한은 그의 편지에서 "죄를 짓는 사람마다 마귀에게 속해 있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죄짓는 자이기 때문입니다"(요한일서 3:8)라고 말했다. 이렇듯 회개는 우리를 묶고 있는 죄의 굴레에서 마귀의 포로 상태에서 온전히 해방될 수 있는 강력한 길이다.

회개를 한 후에는 신자의 권세를 사용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영을 대적하여 다시는 틈 타지 못할 것을 선포하며 내쫓자.

인생을 살면서 경험한 다양한 일들은 그 사람의 현재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의 기억은 부정적인 것이 더 많고 그것은 오늘 우리의 행보를 갈라먹고 있지 않은지 모르겠다. 어린 시절 받았던 부당한 대우로 억울한 마음이 커져 상태를 증오하는 마음으로 오늘을 살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누군가가 던진 말로 인해 큰 상처를 받아 분을 품고 있는 자매가 있는가? 배우자의 사랑 없는 언행으로 배신감과 수치심으로 굶아버린 마음에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분이 있는가?

하나님게로 나아가 우리의 속마음을 솔직하게 쏟아내고 이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죄를 회개하자. 그리고 이 틈을 통해 나를 공격하며 부정적인 감정을 더 크게 키우며 나를 속인 악한 영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히 대적하자. 그래서 2025년 이 한 해는 부정적인 감정의 쓰레기들이 다시는 오늘의 행복을 위협하지 못하게 하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이사야 43:18-19).

yanghur@gmail.com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NJ)교회					
뉴욕새사람교회 담임목사: 이종원 주일 예배: 오전 10:30 영양 예배: 오전 10:45 수요 예배: 오후 8:00 금요찬양: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Tel:(718)461-2810(Fax: 경음), (917)733-3411 46-04 162 St. Flushing, NY 11358	뉴욕센터교회 담임목사: 김재열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6:00(토) Tel:(516)387-9840, 9842(EM), www.cpcnyc.org 154 Old Westbury Road Old Westbury, NY 11568	뉴욕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학진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2:00 창립대회: 오후 12:15 영양예배: 오전 10:00 수요 저녁 예배: 오후 8:00 Tel:(718)706-0100, www.nypc.org 43-23 37th, Ave Long Island City, NY 11101	뉴욕목양장로교회 담임목사: 허진국 주일1부예배: 오전 0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02:00 수요성경강좌: 오후 08:00 금요기도: 오후 09:00 새벽기도: 오전 05:45 Tel:(718)357-9199 12-25 Clintonville St, Whitestone NY 11357	뉴욕부르클린제일교회 담임목사: 이윤석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08:45 금요기도: 오후 08:45 새벽기도: 오전 05:30 성경찬양: 오전 10:00 화,토 Tel:(718)265-2584, www.kfc.org 14 Gravesend Neck Rd, Brooklyn, NY 11223	뉴욕갯세마네교회 담임목사: 이저용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창립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Tel:(516)620-2004 www.gcmnyc.org 2408 5th St, East Meadow, NY 11354
빛과소금교회 담임목사: 정순원 주일 1부 오전 7시30분 주일 2부 오후 1시50분 주요찬양: 오후 1시50분 창립예배: 오전 3시20분 새벽기도 매일 오전 6시 목요일 오후 8시 토요일 오후 7시 30분 Tel:(347)513-1351, chongsunwon@yahoo.com 45-11 149 St. Flushing, NY 11355	새벽별주님교회 담임목사: 정기태 주 일 예 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후 1:00 주요찬양: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 (월-토) Tel:(917)733-7387, bmschurch2021@gmail.com 46-08 161 St Flushing, NY 11358	온누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문휘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요찬양예배: 오전 12:30 새벽기도: (월-토) 오전6:00 Tel:(845) 359-1458, http://onnurichurch.com 10 Oak St, Orangeburg, NY 10662	퀸즈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성국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요찬양예배: 오전 12:30 주요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 예배: 오후 8:00 새벽 기도: 오전 6:00 Tel:(718)886-4040, www.kapoc.org 147-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회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회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하와이 및 북미 지역					
아르헨티나제일교회 담임목사: 김성엽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00 주일4부예배: 오후 3:30 주일5부예배: 오후 12:00 Tel:(54)114-631-1788, AL/ CARABOBO 1253, CAP.FED., B.S., A.S., ARGENTINA	칠레 한인연합교회 주요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저녁 7:00 수요기도: 저녁 9:00 7/14(송파)도: 아침 7:40 토, 주, 공, 동부예배: 오전 9:30(주) Tel & Fax:(562)556-7628, (562)341-0389 Santiago Correo - 3 Casilla 325 Chile	토론토 가든교회 담임목사: 유문권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요찬양예배: 오전 12:00(영미)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금요예배: 오후 7:30 Tel:(416)490-9060, www.torontogarden.org 260 Yorkland Blvd., North York, ON M2J 1R7	하와이 행복교회 담임목사: 이남수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후 11:15 주요찬양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 오전 5:30(화-토) Tel:(808)585-1859 1130 N. Limitz Hwy C-100 Honolulu HI 96817	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일규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후 12:30(영미) 주일4부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기도: 오후 9:00 Tel:(808)947-5252, www.hawaiichurch.org 2122 Melcalf St, Honolulu, HI 96822	멕시코 현지인 교회 선교사: 임한곤 선교사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후 7:30 주일3부예배: 오후 5:00 Tel:(52)33-3507-4111, hanikm@hanmail.net Goya 530 Manuel, Acuna, Guadalajara MEX(멕시코)

목회서신



김창섭 목사
(세계선교회)

걸작품 인생

부가티 라는 자동차 회사가 있다. 자동차 제작의 모든 과정 을 장인의 손으로 직접 제작하 는 것으로 유명한 자동차 회사

이다. 보통의 자동차들은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빠른 속도로 제작 되는 반면, 부가티는 먼저 고객의 요청사항을 다 확인한 다음에, 장인들이 자신의 손으로 직접 자동차를 조립한다. 페인팅 장인이 고객이 원하는 색을 확인하여 직접 페인트를 칠하고, 엔진을 조립하는 데에는 네 명의 최고급 엔지니어가 꼬박 1주일 동안 붙어서 작은 부품 하나 하나까지 직접 다 조립한다. 자동차 시트는 소 15마리 분량의 소가죽을 장인이 직접 검수하여 한 땀 한 땀 꼼꼼하게 손으로 바느질을 한다고 한다. 그러니, 자동차 한대를 만드는데 대략 6개월에서 1년이 걸린다고 하고, 가격도 매우 비싸다. 가장 싼 경우가 300

만불이라 하니 상상조차 되지 않는다. 그렇게 부가티는 공장에서 똑같이 찍어내는 차가 아니라, 최고급 장인이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서 하나 하나 차별화된 독특한 차를 만들어 냈다. 시편 139편 14절에는 “내가 주께 감사하옵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라고 노래한다. 나를 만드신 것을 보니 너무나 놀랍다는 것이다. 이 부분을 개역한글 성경은 ‘신묘막측하심이라’로 번역되어 있다. 곧,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독특하게 계획하시고 창조하셨다는 뜻이다. 공장에서 기계로 똑같은 자동차를 찍어내듯이 우리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부가티에서 차 한 대 한 대를 소비자의 요구에 맞추어서 일일이 수작업으로 제작하는 것처럼,

아니 그보다 훨씬 더 섬세하고 정성스런 손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뜻이다. 그것도 장인의 손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로 말이다. 그러니, 한 대에 몇 백만불짜리 하는 부가티 같은 최고급 자동차보다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가 훨씬 더 귀하고 소중하다. 지금까지 지구에 살았던 인간은 총 1100억명 정도 된다. 그 엄청난 사람들 중에서 어느 하나 똑같은 사람이 없다. 쌍둥이도 다르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똑같이 찍어내신 것이 아니라, 신묘막측하심이라, 최고급 자동차를 수작업하듯이 유일하고 독특하게 우리를 만드셨다는 뜻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그렇게 신묘막측하게 지으셨을

까? 우리를 너무나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이다.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소중히 여기기를 바라신다. 그저 아프지 않게 운동하고 약 먹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건강도 관심을 갖기를 바라신다. 그리고, 나 자신 뿐만 아니라, 다른 영혼의 건강에도 관심을 갖기를 바라신다. 새로운 2025년, 주님의 걸작품으로 만들어진 우리의 인생을 걸작품다운 복된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바란다. wmclakim@gmail.com



토렌스조은교회 창립 34주년 기념 감사예배에서 폴 찰워드 박사(사진 오른쪽)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토렌스조은교회 창립 34주년 기념 감사예배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문제는 영적인 문제”

토렌스조은교회(담임 김우준 목사)는 창립 34주년 기념 감사예배를 19일(주일) 예배시간에 가졌다. 찬양팀의 경배와 찬양과 김우준 목사 사회로 열린 이날 예배는 노수진 장로 기도, 성가대 찬양으로 이어졌다. 이날 폴 찰워드 박사(International Mission Board(IBM) 총재)가 강사로 나서 ‘세상의 가장 큰 문제(롬 3:9-18)’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폴 박사는 “이 세상에는 수많은 문제가 있다. 산발, 전쟁, 정치적인 갈등 등

을 비롯하여 인간관계의 문제 등이 있다”며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영적인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첫째 세상에서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과의 단절의 문제다.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게 되면 영원한 사망을 경험하게 된다. 두 번째는 죄의 문제이다. 본문에서 이는 9번에 걸쳐 강조된다. 우리는 전부 죄인이고 창조주 하나님께 죄를 범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 전 세계 인구가 80억명이 넘어선

다. 그리고 인류역사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장 많아진다. 그리고 매일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 중 17만 4천202명이 예수를 알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한다. 그들은 복음을 듣지 못했거나 거절한 채 죽음을 맞이한다. 그들이 영원한 세계에 들어갔을 때 영원토록 하나님과 분리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토렌스조은교회가 34년간 이 땅에 존재한 이유와 IBM이 100년 넘게 사역을 감당할 이유는 이 세상에 가장 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성경의 증언대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다면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다. 그리고 죄에서 돌이켜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회개이다. 예수님은 정말 주님 이시기에 주님이라고 시인해야 한다. 그 순간 가장 심각한 문제가 해결된다. 그 해결책은 복음이다. 하나님은 복음을 전파 하라고 우리를 부르셨고 34년간 복음전파를 위해 사역했다. 하나님 앞에서 계속 쓰임받기 바라며 왜 이 땅 에 우리가 존재하는지를 잊지 말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예배는 결단의 찬송을 부른 뒤 김우준 목사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남가주살롬교회 일일부흥회에서 김월림 선교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남가주살롬교회 일일부흥회
“하나님은 탄식과 절망의 소리를 듣고 계셔”

남가주살롬교회(담임 김준식 목사)는 일일부흥회를 19일(주일) 예배시간에 가졌다. 김준식 목사 인도로 오전 8시에 시작된 예배는 김훈 장로 기도,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이어졌다. 이어 아이티공화국에서 마이크로 파이낸스 프로그램으로 빈민들과 아이들을 섬기고 제자훈련으로 사역하는 김

월림 선교사가 강사로 나서 ‘블레싱: 구속(사 40:14-26)’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김월림 선교사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여전히 존재한다고 믿지만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가 많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구속하셔서 능히 이길 힘을 주신다”고 말했다. 그는 “아프리카에서 선교사

역을 하게 될 때 잘못된 음식 섭취로 인해 해충이 왼쪽 폐를 감염시켰던 적이 있었다. 한국에서 수술을 한 뒤 사위를 할 때마다 수술자국이 마치 사역에 실패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선교국에서 교육을 받으며 기도하던 중 주님으로부터 위로 받는 체험을 하게 되었다. 그 이후부터 수술자국은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기억하고 사랑하고 계시다는 증표로 여겨지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잊혀진 존재가 된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신다”며 “이민자로 살면서 내일 무엇을 해야할 지 캄캄할 때가 있다. 기도해야 하지만 기도할 수 없어서 탄식을 가지고 참석한 자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탄식과 절망의 소리를 듣고 계신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오면 인생은 새로워질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셨고 자녀삼아 주셨다. 그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며 매일 주님을 노래하며 사는 자들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예배는 김 선교사가 합심기도를 인도한 뒤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영상취재〉



UMC 목회자, 평신도 80명이 참석한 가운데 줌으로 열린 산발피해 회복기도회가 열렸다

UMC 캠패연회 한인교협, 긴급 ‘산발피해 회복기도회’ 개최

연합감리교 캠패연회 한인교회연합회(코리언 코커스, 회장 이석부 목사)는 지난 13일 오후 6시 30분 줌으로 ‘남가주 산발 피해 회복을 위한 기도회’를 개최했다. 전국적으로 80여명의 목회자 및 평신도들이 참가하여 산발피해지역을 위해 기도하는 한편 오는 1월 26일 주일을 ‘LA 산발재해 특별주일’로 정해 재난지역과 피해가족들, 피해를 입은 교회들을 위해 기도하며 특별헌금을 하기로 결의했다. 이석부 회장은 “캠패연회에 속한 두 교회인 퍼시픽 팰리세이드 UMC와 알타데나 UMC 등 2개 교회를 비롯해 두 목회자의 집, 그리고 수많은 교우들의 집이 전소되었다”고 말하고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라는 로마서의 말씀을 기억하며 한인코커스가 중심이 되어 특별기도회를 열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날 기도회는 코커스 부회장 이영성 목사의 기도, 캠패 연회 감독 도티 에스 코베도 프랭크 감독의 감사와

위로의 메시지와 함께 현재 연회 안에서 발생한 피해상황에 관한 설명이 있었다. 또 클레어 몬트 신학교 부총장인 이경식 교수가 산발 피해로 인해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을 수 있는 교우들과 나눌 수 있는 ‘목회상담법’에 관하여 강의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줌 미팅에 참석한 오하이오 연회의 정희수 감독은 시편 121편 말씀인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라는 말씀을 인용하며 비록 재난의 어려움 속을 걷고 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이 우리와 함께 함을 믿고 힘을 내자고 말했다. 이후 총무인 전재홍 목사의 인도로 3가지 기도제목을 나누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ZOOM으로 진행되는 기도회이지만 모든 참석자들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진 후 3명의 목회자들이 마침기도를 인도했다. 이날 기도회는 연합감리교회 한인총회장 이창민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한편 1월 26일을 특별기도주일로 정하고

특별헌금을 하여 캠패연회로 직접 보내거나 혹은 한인코커스로 보낼 경우 어려움을 당한 한인교회들을 위해 사용하기로 했다. -헌금 보내는 방법: 1) Zelle은 calpackoreancaucus@gmail.com 2) Check은 Pay to CAL-PAC KOREAN CAUCUS. Memo는 LA Fires Recovery Fund 주소: CAL-PAC KOREAN CAUCUS Attn: Pastor Christian Jung 8111 Walker St, La Palma CA 90623

〈정리: 박준호 기자〉

사우스베이목사회 신년 1월 정기 예배

사우스베이목사회(회장: 신대섭 목사)는 2025년도 새해를 맞아 1월 정기모임 겸 신년 예배를 드렸다. 지난 1월 15일(수) 오전8시 토렌스조은교회(김우준 목사)에서 신대섭 목사의 사회로 열린 신년예배에서는 이환영 목사(남가주기쁨의교회)의 기도에 이어 김우준 목

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설교 후 통성기도의 시간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목회자와 교회를 위하여, 세계 각처에 있는 선교사들의 건강을 위하여, 그리고 지역 사회의 복음화와 각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기도했다.

〈정리: 박준호 기자〉



사우스베이 목사회 1월 정기예배가 토렌스조은교회서 열렸다

주님의교회 AI 인공지능 세미나 열어
“AI 인공지능, 교회의 새로운 사역 방향으로 주목”

라하브라에 위치한 주님의교회(담임 김병학 목사)에서 13일(월)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주목할 만한 세미나가 개최됐다. ‘AI 인공지능 세미나’라는 제목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하여 인공지능의 기본 개념, 특히 모바일 폰에서 ChatGPT를 실용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소개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세미나는 ‘무료’로 ‘기초반’으로 진행되었으며, 15명의 열정적인 참가자

들이 미리 접수하고 함께했다. 이 강의는 김병학 목사가 강사로 나서 진행하였으며, 이론뿐 아니라 각 참가자들을 세심하게 지도하고, 개인별 관심과 필요에 맞게 매우 효과적이고 몰입감 있는 학습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실습 위주의 접근 방식은 특히 75세 이상의 참가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세미나는 강의 중뿐만 아니라 강의가 마친 후에도 많은 질문이 오가는 활발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특히 이번 세미나에서는 새로운 전도법의 가능성이 발견되었다. 김목사는 비기독교인들에게 인공지능을 가르치며 그들과의 대화를 통해 자연스럽게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하고 있음을 밝혔다. 김병학 목사는 “말

은 사람들이 인공지능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배울 기회가 부족한 상황에서, 교회가 배움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사람들에게 교회를 접할 기회를 제공하게 되었는데 교회의 새로운 사역 방향으로 주목받게 되었고 젊은 세대와의 접촉 및 소통의 계기가 마련이 되었다. 교회에서 젊은 세대의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인데, 인공지능 강의를 통해 젊은 세대에게 흥미로운 주제를 제공하고 그들과 교류할 수 있게 된 것은 새로운 접근법이라고 생각 한다”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의 성공과 참가자들의 긍정적인 반응에 힘입어, 김병학 목사는 가까운 시일 내에 ‘중급반’을 개최할 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목회자를 위한 맞춤 강의와 비기독교인을 위한 강좌도 준비 중에 있다. 자세한 것은 (626)961-8575 으로 문의하면 된다.

〈기사제공: 주님의교회〉



주님의교회에서 AI 인공지능 세미나가 열렸다. 사진은 세미나 포스터이며 오른쪽 아래 원안은 이날 강의를 한 김병학 목사

동부교계 게시판

후러싱제일교회 김정호목사 출판 축하예배

후러싱제일교회(담임 김정호 목사)는 새 책 『내일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365 말씀묵상』을 출판하며, 이를 기념하는 출판 축하 예배를 2월 2일(주일) 오후 5시 후러싱제일교회에서 갖는다.

▲ 문의: 718-939-8599

뉴욕목사회, 젊은세대와 기성세대 포럼

뉴욕목사회(회장 한준희 목사)는 2025년 새해를 맞이하여 2월 10일 오전 10시 CTS 방송홀에서 젊은세대와 기성세대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 진행자는 김진우 목사, 문덕연 목사, 전광성 목사, 최호섭 목사, 강원근 목사, 노진산 목사, 이규섭 목사, 정민철 목사이다. 방청석이 제한으로 참석을 원하는 분은 미리 연락을 요한다.

▲ 문의: 917-370-5954



미동부 아펜젤러 선교 140주년 기념대회 감리교 신학대학교 합창단 축하공연 후 사진 촬영했다

미동부 아펜젤러 선교 140주년 기념대회

감리교 신학대학교 합창단 축하공연

미주아펜젤러기념사업회는 아펜젤러 선교 140주년을 맞아 1월 16일(목) 오후 7시 30분 뉴욕그레이트넥교회(담임목사 양민석)에서 미동부 기념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아펜젤러의 선교적,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며 그의 숭고한 헌신을 기리는 특별한 축하 시간으로 마련됐다.

장재웅 목사(아펜젤러 선교 140주년대회 준비위원장)의 사회로 시작된 1부 예배는 차철회 목사(뉴욕청암교회)의 기도와 최성 장로(뉴욕그레이트넥교회)의 성경봉독으로 이어졌다. 뉴욕미션과이어의 특송 후, 유경동 목사(감리교 신학대학교 총장)가 ‘하나님의 사랑(요 3:16)’을 주제로 설교를 전했다. 유 목사는 “하나님은 제2 제3의 아펜젤러 선교사가 나오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끝까지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신다. 영생의 선물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끝까지 주님의 길을 따라 승리하기 바란다”고 권면했다. 이어 김정석 감독(기독교대한감리회 KCM 감독회장)의 영상축사 후 김종일 목사(뉴욕성서교회)의 축도로 1부 예배를 마쳤다.

2부는 감리교 신학대학교 합창단의 축하공연으로 시작되었

다. 공연에 앞서 양민석 목사는 “42년 전 감리교 신학대 합창단으로 헌신했던 경험을 회상하며 후배들을 만난 감격을 전하고, 그들의 찬양과 헌신을 통해 아펜젤러 선교 정신과 새로운 부흥이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인사했다. 이번 공연은 합창과 여성·남성 중창, 솔로 등 다섯 가지 스테이지로 구성되어 다양한 장르의 찬양과 음악을 선보이며 참석자들에게 깊은 감동과 여운을 남겼다.

이날 봉헌 특송은 제시유 교수와 김영환 전도사, 현금 기도는 김진우 목사(뉴욕메트로폴리탄교회)가 드렸다. 드러진 헌금은 아펜젤러기념사업회 사역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이어 강미영 목사(KUMC 동북부 회장)의 대회 선언문 낭독 후 김남석 목사(뉴욕드림교회)의 기도로 대회의 막을 내렸다. 한편 대회에 참석한 목회자들에게는 강홍복 목사가 저술한 한국감리교회사(1884-1930)를 전달했다. 이날 대회에 참석한 김택용 목사는 “140년 전 아펜젤러 선교사가 한국에 뿌리 내린 복음의 열정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 그를 통한 조선 땅에 흘려보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찬양할 때 미주 땅의 아픔과 갈등이 치유되어지고 하나님의 살아 계심이 선포되는 귀한 행사였다”고 소감을 말했다.

〈홍현숙 기자〉



2025 제직수련회를 마치고, 강사 이용걸 목사와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했다

퀸즈장로교회, 2025 제직수련회

이용걸 목사, “새해에 이렇게 삽시다”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는 1월 18일(토)부터 1월 19일(주일)까지 ‘새해에 이렇게 삽시다’라는 주제로 이용걸 목사(디모데목회훈련원 원장, 필라델피아장로교회 원로)를 초청하여 2025년 제직수련회를 열었다. 이용걸 목사는 토요 새벽기도회를 포함하여 주일 4부 예배까지 총 5번의 집회에서 말씀을 전했다.

첫째 날 새벽 집회에서 이용걸 목사는 “평탄한 길 갑시다(에스라 8:15-23)”를 제목으로 한 설교에서 “혼란한 가운데 맞이한 2025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에스라처럼 주 안에서 바르게 살면

내가 가는 길이 평탄한 길이 되며 가정도 평탄하게 되며 교회도 은혜 가운데 부흥하게 될 것이다. 에스라처럼 주 안에서 생각하며 살고, 겸손하게 살고, 간절히 기도하며 살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우리의 길을 평탄케 하실 것이다”라고 메시지를 전했다.

이 목사는 주일 1부 “버리고 갑시다(예레미사 4:25-32)”, 2부 “이렇게 삽시다(여호수아 3:1-6)”, 3부 “아름답게 삽시다(사무엘하 19:31-39), 4부 “기분으로 돌아갑시다(마태복음 7:24-27)”를 주제로 2025년 새해를 이끌어갈 제직들과 성도들에게 말씀을 선포했다.

〈김재상 기자〉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총동문회, 신년하례예배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촬영했다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총동문회, 신년하례예배

‘초대교회의 모습을 꿈꾸며, 말씀과 기도로 새해를 시작하다’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총동문회(회장 박병섭 목사)는 1월 20일(월) 오전 11시 뉴욕심포니교회(신동기 목사 시무)에서 신년하례예배를 드리며 새해 사역을 시작했다.

박병섭 목사 인도로 시작한 예배는 정기태 목사 기도, 김정미 전도사 성경봉독, 설교 이용호 목사 순으로 진행됐다. ‘참 교회, 참 목사’(행 2:41-47, 6:1-7)를 주제로 설교한 이용호 목사는 “초대교회는 제자들이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전하고, 가르치고,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공동체였다”고 강조하며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 목회자와 교회의 사명이다. 목회자들이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 사역에 충실하는 것이며,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어 나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이종태 목사가 현금기도를, 이종원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신년 예배 후 신동기 목사의 인도로 진행된 기도회는 △동문교회와 동문들을 위하여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를 위하여 △총동문회가 준비하는 모든 행사

를 위하여 △제35회기 총동문회회장과 임원진들을 위하여 △지역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하여 △미국과 한국을 위하여 △병환 중에 있는 분들을 위하여 기도제목을 시작했다.

정기태 학감은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는 1987년에 설립된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총회 인준 신학교로, 2024년까지 35회에 걸쳐 총 577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고 소개하며 “2020년에는 신학석사(Th.M) 과정을 개설하여 미시온 신학교와 MOU를 체결, 설교학 과정으로 20명의 졸업생을 배출했고 지난해에는 글로벌리폼드신학교(GRS)와 MOU를 맺고 성경적 상담학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번 성경적 상담학 강의를 맡고 있는 황규명 교수와 김준수 교수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학위를 받았으며, 성경적 상담학을 체계적으로 연구한 뛰어난 학자들로 평가받고 있다.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718-463-7163으로 하면 된다.

〈홍현숙 기자〉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가든노회 신년하례예배

‘은혜로운 예배와 기후·평화를 위한 기도’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가든노회(회장 허상희 목사)는 1월 19일(주일) 오후 6시 뉴저지성도교회(허상희 목사 시무)에서 신년하례예배를 열었다.

허상희 목사 인도로 시작한 예배는 조성훈 목사의 기도, 김기환 목사의 성경봉독, 이준성 목사의 설교 순으로 진행됐다. 이준성 목사는 ‘발바닥으로 밟으라(여호수아 1:1-9)’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다. 이어진 통성기도는 △총회와 노회와

지역교회를 위해 (조성훈 목사) △대한민국과 미국을 위해 (김기환 목사) △기후재난(산불, 폭설, 지진 등)과 전쟁으로 인한 피해 복구를 위해 (김지희 목사) 각각 기도 제목으로 인도했으며 김지희 목사의 광고와 이원호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예배 후 준비한 선물을 나누고 식사를 함께하며 훈훈한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

〈정리: 홍현숙 기자〉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뉴욕서노회 신년하례회

‘타협 없는 절대 신앙과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뉴욕서노회(회장 임일송 목사)는 1월 14일(화) 오후 5시 뉴욕만나교회(시무 정상철 목사)에서 열었다.

임일송 목사의 인도로 시작된 예배는 오영상 목사의 기도와 박종욱 목사의 설교로 이어졌다. 박종욱 목사는 ‘타협하지 않는 신앙(단 3:13-18)’을 주제로 설교했다. 박 목사는 “사드락, 메사, 아벳느그의 대답은 타협하지 않는 신앙이 무엇인지 분명히 보여준다. 그들이 말한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절대적인 신앙임을 나타낸다. 왕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그들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답한 것이다. 이들의 태도는 우리에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

세대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심을 믿습니다’라고 외치고 담대히 주장하며 하나님을 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 목사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라는 말로, 죽음을 넘어 더 나은 부활의 소망을 품고 있기에 끝까지 타협하지 않겠다는 결단을 보여준다. 죽음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감당할 만한 믿음을 주신다. 이러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예배는 정관호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이후 사모회에서 준비한 식사와 목원회에서 계획한 교제의 시간을 통해 따뜻한 나눔의 시간을 가졌다.

〈홍현숙 기자〉

찾아가는 신학교, 감동을 주는 교육!

고든콘웰신학대학원, 2025년도 한국어 목회학 박사 과정 신입생 모집

고든콘웰신학대학원이 2025년 한국어 목회학 박사(DMin) 프로그램 신입생을 모집한다. 본 과정은 목회자와 사역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실천적 문제 해결 능력과 특정 사역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심화하며, 신학적 지식과 목회적 실천을 통합하는 것을 목적으로 디자인되었다.

본 학위과정은 1년 차 GCI 사역 역량 개발 프로그램, 2~3년 차 2학기의 집중 대면 강의와 특강, 다양한 세미나 및 실습 활동, 마지막으로 논문 프로젝트 세 단계로 구성된다. 학생들은 고든콘웰 핵심 교수진과 멘토링을 통해 목회 현장의 문제를 다루는 연구를 수행하며, 현직 목회자·사역자들이 계속해서 사역을 하면서도 자신의 목회·사역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모집 대상은 정규 신학대학



원 졸업자 중 3년 이상의 목회나 사역 경험이 있는 자로, 정원은 선착순 30명이다. 모집은 1월 15일부터 4월 15일까지이며, 모든 과정은 한국에서 진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www.gctskdmin.org에서 확인하면 된다.

〈기사제공: 고든콘웰신학대학원〉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가든노회 신년하례예배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피종진 목사 1월 부흥성회



- 총신대학교 56회 동문회 회장
- 연세대학교 총동문회 상임이사
-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이사
- 한국뉴욕주립대학교 영어 연구원 동문회 회장
- 미국 Philadelphia Faith 대학원 총장 Carl McIntire(D.Min)
- 미국 Henderson Christian University 총장 Henderson Belk(Tn,D)

010-5255-7777
Godbless3377@gmail.com

- 1(수) Special Blessing Event MT
World 기독교총연합회(대표고든 피종진 목사, 이사장 정진희 목사)
010-7567-8291 장소: 양주시 시온수양관(원장 정일문 목사)
의정부 주님의교회(임수연 목사) 010-7721-2286
주최: 地宣協(이사장 강영준 목사, 대표총재 안창남 목사)
Tent Makers Mission(대표 남보석 목사) 010-7220-0733
연합신년하례성회(장소: 서울 여전도연합회관)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총동문회(김대성 동문회장 취임-동영상 축하메세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한영) (총회장 박승식 목사) 신년축복성회
장소: 서울한영대학교(총장 한영훈 목사) 010-2009-7272
서울 주님의교회(배성수 목사) 010-3065-7825
주최: 작은자심성교회(대표회장 양유식목사)
6(월)~7(토)저녁 서울 위대한 약속교회(윤재민 목사, 임미향 목사) 010-6201-8374
9(목) 오전 (사)한국복음화운동본부(대표총재 피종진 목사, 총재 김원준 목사) 총회 및 신년하례
장소: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관 010-5372-1691
세종 평화의동산(원장 피종진 목사) 신년산상축복대성회 041-852-2211
국민일보 국부협 신년하례 및 기도회(총재 고종진 목사) 010-3899-0691
부천천광교회 주최: 민족복음화부흥협의회(대표회장 임동철 목사) 010-7407-9958
오산리치자살기념기도원(원장 김원철 목사)
주최: 한국기독교부흥사단제총연합회(준비위원장 김우경 목사) 010-8898-9141
14(화)~18(토) Visiting Mission Fields around the World in Thailand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총동문회 김대성 목사 대표회장 취임식 예배
서산 (주)대한건설(대표 최종운) 010-5422-3705
주최: 한국기독교여성총연합회(대표총재 권영기 목사) 010-5603-4997
능력선교회(임은선 목사) 010-4719-5471
연세대학교 연부협(총재 강영선 목사, 준비위원장 김진옥 목사) 010-3443-1541
장소: 오산리치자살기념식기도원(원장 김원철 목사)
서울대학교 총동창회(회장 김중섭) 신년하례회 장소: 서울롯데호텔 사파이어볼룸
풀내마포교회(김현수 목사) 010-7667-4719
주최: World 기독교 총연합회(이사장 정진희 목사, 대표총재 김현수 목사)
서울한영대학교 7층 대강당 (주최: 제미재단법인 세계복음화협의회 & 국민일보(주)
Special Blessing Event MT
24(금) 오후 사창원은혜교회(피은혜 목사) 구정축복성회 010-4586-8642
25(토) 오전 서울 성광교회 주최: 요한선교회(단장 김동진 목사) 010-7293-3217



www.nscs.or.kr
www.nscs.or.kr
www.nscs.or.kr

Tel. 02)3411-9191
Fax. 02)401-7770



2025 밀알장애인 장학복지기금 수여식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2025 밀알장애인 장학복지기금 수여식

103명에게 장학기금 \$134,200 지급

2025 밀알장애인 장학복지기금 수여식이 20일(월) 오전 11시 감사한인교회(담임 구봉주 목사)에서 열린 가운데 이재서 목사(세계밀알연합 총장)가 ‘밀알의 사명(요 12:24)’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이목사는 “밀알선교단이 45년이 되었다. 밀알장학복지기금 수여식이 20년 넘게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밀알을 후원한 남가주와 미주지역의 많은 분들이 있어서이다. 그분들의 수고에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달란트를 주셨다. 달란트는 크고 적음의 개념이 아닌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에 주신 역할을 충성스럽게 사용하는 것이다. 오늘 장학금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재능과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종열 장로(장학위원장) 사회로 열린 이날 장학금 수여식에는 미주장애인장학생 9명(\$3,600)과 근로복지생 3명(\$3,600), 꿈나무장학생 16명(\$1,000), James Worldwide

장학생 10명(\$1,000), Moon Foundation 장학생 10명(\$1,000), Chong's FF 장학생 5명(\$1,000), 장애인선교사역자 육성장학금 20명(\$1,000), 제3국 및 중남미 장학생(태국, 필리핀, 캄보디아,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파테말라, 볼리비아, 멕시코, 우간다) 20명(\$1,000), 긴급지원 대상 추가 기금 10명(\$1,000) 등 총 103명에게 \$134,200의 장학기금이 지급되었다. 밀알장애인 장학복지기금이 처음 출범한 2001년부터 2025년까지 누적 총 지급액은 \$3,146,600에 이른다.

이정수 행사위원장 사회와 남가주밀알선교단 찬양팀의 찬양인도로 시작된 이날 행사는 밀알 스토리 영상소개, 심상은 목사(남가주밀알 부이사장, 갈보리선교교회) 기도, 이재서 목사(세계밀알연합 총재) 설교, 장학금수여식, 이종희 목사광고, 이지선 교수(이화여대 교수)와 김병학 목사(주님의교회) 격려사로 이어졌다. 이날 모든 순서는 이영선 목사(미주복음방송)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충현선교교회 2025년 신년부흥회에서 임현수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충현선교교회 2025년 신년부흥회

“북한에서 목숨 걸로 나온 탈북자들, 교회가 섬겨야”

충현선교교회(담임 국윤권 목사) 2025년 신년부흥회가 ‘기도로 북한과 열방을 품는 제사장 민족’이라는 주제로 17일(금)부터 19일(주일)까지 임현수 목사(토론토콘빛교회 원로)를 강사로 초청한 가운데 개최됐다. 국윤권 목사 사회로 열린 이날 오전 8시 예배는 시온 찬양대가 찬양했으며, 인도네시아 송영환 주수현 선교사와 산불피해자,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해 합심 기도한 뒤 정지석 장로가 기도했다. 이어 임현수 목사가 ‘민족, 화해, 축복의 원리(창 45:1-11)’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임현수 목사는 “이스라엘과 한국은 비슷하다. 외세의 침략을 받았고 2천년동안 나라가 없이 방황한 민족이 되었다. 1948년 이스라엘이 건국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정금 같이 사용하신다”고 말하고 “이스라엘은 고난의 민족이지만 토라를 배우고 탈무드 교육을 배웠고 회당과 가정을 지켰기에 지구상에서 특별하게 쓰임 받는 민족이 되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우리나라도 수천 년 동안 북방제국들과 일본에 의해 침략을 당해왔다. 그리고 36년 동안 고난을 받고 언어도 빼앗기고 억울한

삶을 살았다”고 말했다. 임목사는 “마지막 분단국가가 된 대한민국에 초점이 모아져있다. 우리의 최대과제는 통일이다. 통일을 앞에 두고 가장 중요한 3가지가 있다. 첫째 우리의 의식이 변해야 한다. 우리는 북한을 볼 때 북한정권과 북한주민들을 따로 봐야 한다. 북한의 2천만 백성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이며 그곳에서 태어난 죄밖에 없기에 형제적식을 가지고 대해야 한다. 둘째 안목의 변화이다. 요셉은 엄청난 권력을 가졌지만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눈으로 형제들을 대했다. 세 번째 태도의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 우리는 북한을 섬겨야 하는데, 탈북자들을 섬길 수 있어야 한다. 목숨을 걸고 나온 탈북자를 교회가 품지 못하면 그것이 교회인가? 북한선교는 자기희생이 있어야 한다. 구제는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이다. 남북이 하나가 되는 것은 서로 섬길 때 가능하다. 작은 것들을 모아서 LA에 있는 탈북민을 도와야 한다. 그들을 어떻게 섬길 수 있는지 고민하고 기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예배는 국윤권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평통 종교분과위원회가 주최한 신년조찬기도회를 마치고 기념촬영

“남가주 산불 피해 극복을 위해 기도합시다”

평통 종교분과위원회 주최, 신년조찬기도회 열려

미국 역사상 최대 산불로 기록될 급변 산불로 인해 교계와 각 단체들은 곳곳에서 기도회를 열고 산불피해자를 돌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미주평화통일자문회 LA협의회, 종교분과위원회(위원장 정요한 목사)는 지난 18일(토) 오전 8시 ‘산불피해 극복을 위한 신년조찬기도회’를 영생장로교회(담임 김재연 목사)에서 개최했다.

김재연 목사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히 11:33-38)의 제목으로 “평통은 조국을 위해 기도하라고 주신 사명이다. 지금 조국이 혼란스럽다. 미국도 산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 이 모든 상황을 주님 손에 올려놓고 간절히 기도하자. 작금의

모든 상황을 볼 때 우리 목사들의 책임이 크다. 기도하지 못한 죄다. 지금 우리는 조국을 위해, 열에 산불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동기도 제목을 갖고 ‘남가주 산불 피해 극복을 위해’(신샘 목사), ‘조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박종대 목사), ‘남가주교계 화합과 성장을 위해’(지용덕 목사), ‘한인 커뮤니티 발전을 위해’(김요한 신부)가 기도를 인도했다. 이날 목사사모중창단(지휘 엄규서 목사)과 평통 찬양단(지휘 전복일 찬양사역자)의 특별 찬양이 있었으며 사역석 전 LA한인회장의 축사가 있는 뒤 최화량 목사(상임고문)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이성자 기자)



꾸나 종족 복음화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허승호 선교사가 사역보고를 하고 있다

파나마 꾸나 종족 복음화를 위한 헌신예배

“시험을 참고 견디며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역하길”

허승호 선교사가 사역하고 있는 ‘파나마 꾸나 종족을 위한 헌신예배’가 16일(목) 오전 10시 세계선교교회(담임 김창섭 목사)에서 열렸다.

강지현 전도사의 찬양인도로 시작된 예배는 김재권 장로(성시화 이사장) 기도, 송정명 목사(미주성시화 공동대표) 설교, 허승호 선교사 사역보고, 김창섭 목사 축도로 진행됐다.

송정명 목사는 “지난해 미주성시화에서 파나마를 방문, 꾸나 종족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허승호 선교사를 만났었다”고 소개하며 “꾸나 종족이 살고 있는 파나마는 이곳 열에이에서 5-6시간이면 달을 수 있는 곳인데 너무 가난한 모습이었다. 그곳에서 헌신하고 있는 허 선교사님의 노고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이어 송목사는 ‘사도바울을 멘토로 삼아’(사도행전 20:17-24)의 제목으로 “사도바울은 겸손함으로 섬겼

고, 눈물로 영혼들을 양육했으며 무릎으로 눈물의 사역을 이어갔다. 바울을 멘토로 삼아 모든 선교사나 사역자들도 시험을 참고 견디며 유익한 것은 거리낌 없이 전하고 순간마다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따라 사역해야 한다”고 말씀을 전했다. 이날 김영신 사모(허 선교사 사모)는 “꾸나족을 처음 만났을 때, 그들 속에서 나의 모습을 보았다”며 “힘들지만 기쁨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며 올바른 선교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허승호 선교사가 그동안 함께 동역해준 분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꾸나 종족의 영상과 함께 그간의 사역을 소개했다. 파나마 선교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kevin.hur@bibletime.org로 문의하면 된다.

(이성자 기자)



엘피스가정사역원은 사모 및 여성 평신도 지도자 대상 정기 중보기도회를 연다

서부교계 게시판

은혜한인교회 신년축복성회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는 신년축복성회를 '0점 인생 명품 인생'이라는 주제로 23일(목)부터 26일(주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성회의 강사는 하근수 목사(동탄시온교회 담임).

▲ 문의: (714)446-1000

세리토스장로교회 신년 축복성회

세리토스장로교회(담임 박규성 목사)는 신년 축복성회를 '믿음의 수준을 높이는 성도가 됩시다'라는 주제로 24일(금)부터 26일(주일)까지 갖는다. 강사는 김성엽 목사(아르헨티나 제일교회).

▲ 문의: (562)677-7777

월셔연합감리교회 김기석 목사 초청 신년부흥회

월셔연합감리교회(이영성 목사)는 오는 1월 24일(금)부터 주일인 26일까지 '다시 일어나!'라는 주제로 2025년 신년대부흥회를 개최한다. 강사는 서울 청파교회 원로 목사인 김기석 목사이며 일정은 24일(금) 저녁 7시, 25일(토) 오전 6시, 저녁 6시, 26일(주일) 오전 8시, 11기45분.

▲ 문의: (213)749-4500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 회장 이취임 및 신년하례 감사예배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는 한성준 45대 회장과 김도영 이사장이취임 및 신년하례 감사예배가 25일(토) 오후 4시 감사한인교회(담임 구봉주 목사)에서 열린다.

▲ 문의: (714)306-5288



주님의영광교회 창립26주년기념 주일예배 시간에 열린 임직식에서 본 교회 교인들이 서약하고 있다

주님의영광교회 창립26주년기념 주일예배 및 임직식

“순종과 헌신, 감사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

주님의영광교회(담임 신승훈 목사)는 창립26주년 기념주일에 예배시간에 거행했다. 신승훈 목사는 “우리 교회의 지난 26년을 돌이켜볼 때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신하고 감사하려고 교인들이 애썼다. 그래서 주님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며 “주님께서 베풀어주신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되었다. 창립 26년을 맞이하여 우리 교인들 개인과 가정의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 아버지의 영광이 더 나타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찬양팀의 경배와 찬양과 합심기도로 오전 10시30분에 시작된 이날 예배는 최기영 장로 기도, 영광찬양대의 찬양, 26년 발자취 소개영상으로 이어졌다. 이어 신승훈 목사가 ‘오병이어 기적에서 쓰임받은 사람들과...’(요 6:1-15)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신목사는 “본문에서 디베라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병자들에게 행하신 표

적을 보고 따라갔다. 하지만 오병이어 사건 이후 예수님은 산으로 향하셨다”며 “본문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쓰임 받은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이 있다. 첫째 순종했던 안드레와 제자들이다. 둘째 아이의 헌신이다. 별 볼일 없는 것이지만 내놓았다. 능력이 작고 가진 것이 없어도 주님께 드리면 주님이 역사하신다. 마지막 감사이다. 감사하기 어려운 상황이어도 감사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반면 쓰임 받지 못한 자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자들이다.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설명했다. 신목사는 “사람들은 기적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뜻을 헤아리기보다 자신의 생각대로 하려고 했다.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마찬가지이다. 부족해도 헌신하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직식을 통해 3명의 안수집사, 5명의 권사를 새로운 일군으로 세웠다. 이날 예배는 신승훈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엘피스가정사역원, 정기 중보기도회 연다

사모 및 여성 평신도 지도자 대상, 매월 첫 금요일

엘피스 가정사역원(대표 박운송 목사)은 목회자 사모와 여성 평신도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매달 정기 기도회를 개최한다. 기도회는 매달 첫 번째 금요일 오전 10시 LA한인타운에 있는 LA 복음연합감리교회(담임 김호용 목사/1200 S. Manhattan Pl. LA, CA 90019)에서 열린다. 대표 박운송 목사는 “우리 사회는 불확실성과 불안으로 가득한 시대이다. 특별히 LA에서는 큰 산불로 인해 많은 가정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중”이라고 말하고 “우리의 조국 한국도 정치적 혼란과 갈등 속에

서 모두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 도처에서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이야말로 중보기도가 필요한 때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이다. 사모님, 여성 평신도 지도자들이 매달 중보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도회에 관한 문의전화는 (213)700-9928(박운송 목사)로 하면 된다.

(기사제공: 엘피스가정사역원)



부산교회총연합회, “부산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자”

2025년 신년회 및 대표회장 이·취임식 열어

부산교회총연합회(부교총·대표회장 엄정길 목사)는 지난 16일 순복음안락교회(송용대 목사)에서 부산 기독교 지도자들을 초청한 가운데 신년회 및 대표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이·취임식에는 부산 교계 지도자들과 교회연합회 주요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부교총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국내의 소식들로 혼란스러운 사회 분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함께 기도하며 지혜를 모으는 데 앞장서기로 했다. 부교총은 지금까지 ‘소통과 융합’을 지향하며 개방과 교류를

통해 세상을 이해하고 서로 다른 것을 결합해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출하는 데 역점을 뒀다. 부교총은 이날 엄정길 신임 대표회장의 진두지휘로 2025년 새로운 도약의 성공을 위해 힘차게 발을 내디뎠다.

이경은 순복음진주초대교회목사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롬 8:26~28)이란 주제로 말씀을 선포했다. 이목사는 “성령을 받아야 한다. 베드로처럼 완벽한 신앙고백이 있어야 한다. 성령세례에서 나타나는 증거는 방언”이라며 “중언부언하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기도해야 한다. 말씀과 기도로 기록한 곳으

로 들어가야 한다. 말씀과 기도로 살아야 양육하고 가르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영의 사람은 어떻게 자라는가.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정확하게 잘 성숙할 수 있다. 모든 교회가 잘 되길 바란다. 말씀으로 하나 되는 부교총이 되길 바란다”고 권면했다.

특별기도회 시간에는 상임회장 광영수 장로가 ‘나라와 민족, 북한 복음화를 위해’, 감사이주원 목사가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전쟁 종식과 세계 평화를 위해’, 상임회장 김영란 목사는 ‘부산시와 부산 복음화를 위해’ 각각 기도했다. 이어진 2부 축하 및 대표회장 이·취임식에서 엄 신임대표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성령의 바람이 불어 대한민국을 살리고 부산을 살리고 복음 전파의 열망이 살아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상임고문 김상관 장로의 격려사, 천병석 부산장신대 총장과 권종오 부산성서화운동본부장이 각각 축사를 전했다. 문동현 전임 대표회장은 이임사에서 “저와 함께한 46회기 실무임원진께서 자리를 지켜주시고 인내해주셔서 감사드린다. 여러분의 뜨거운 열정과 노력 덕분에 본 연합회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었다. 아름다운 기억과 인연을 가슴 깊이 간직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대의 숨은 영웅들’, 34년 간 이어온 생명나눔의 역사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창립 34주년 기념식

“생명을 나누는 장기기증을 통해 더 행복해했습니다.” 21일 서울 종로구 YMCA 2층 대강당에서 열린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이사장 박진택 목사) 창립 34주년 기념식’에서 릴레이 신장이식에 기여했던 백창전(66)씨는 이렇게 말했다. 평생 사회복지사로 살아온 그는 “누군가를 돌보고 배려하는 직업 덕분에 자연스럽게 나누는 삶을 살아왔고, 그것이 나의 행복이었다”며 “생명나눔 활동을 통해 내 자신이 더 행복해졌다”고 고백했다.

2009년 얼굴도 모르는 타인을 살리고자 했던 백씨의 순수 신장 이식으로 시작된 릴레이 신장이식은 4명의 생명을 살리는 길로 이어졌다. 릴레이 신장이식은 가족 중 기증자가 있어도 혈액형과 조직형이 맞지 않을 때, 장기기증본부를 통해 비혈연 기증자와 수혜자 간 교환 이식을 연속적으로 연결하는 방식이다. 한 환자가 기증받은 후 그의 가족이 다른 환자에게 신장을 기증하며 과정이 반복된다.

마지막 릴레이 주자였던 유

영서(72)씨는 아내 정영희(67)씨를 위해 신장을 기증했다. 그는 “아내가 신장이식을 받아야 한다는 진단을 듣고 절망했지만, 교환 이식을 통해 새 생명을 선물할 수 있었다”며 “요즘은 아내와 ‘감사’라는 말을 달고 산다”고 말했다. 정 씨는 “남편이 자신의 몸 한쪽을 희생하며 나를 살리려 했던 마음에 감동했다”며 “서로를 돕고 살아가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짝지어 주신 이유를 깨달았다”고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생존 시 신장기증인 ‘리빙도너’ 40명과 뇌사 장기기증인 유가족 ‘도너패밀리’ 30명을 포함해 회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는 국내 최초 순수장기기증인 박진택 목사가 1991년 창립한 단체로 이후 122만여 명의 장기기증 희망등록자를 모집하며 국내 장기기증운동을 선도해왔다. 생명나눔 예배, ‘9월 9일 장기기증의 날’ 캠페인, 신장이식 결연사업, 뇌사 기증인 유가족 예우 사업, 어린이·청소년 생명나눔 교육, ‘제주 파파의 집’ 운영 등을 통해 성숙한 생명나눔 문화를 조성해왔다.

기적을 믿으면서도...

(1면에서 계속)

서양에서 기적이 거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건 기적이 멈췄다는 신호가 아니라 우리 문화가 더 이상 기적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신호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서양 신자로서 나도 기적을 기대하지 않는다. 비록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믿더라도 말이다.

기적을 기대하는 게 힘든 두 가지 이유

나는 오랫동안 서구의 불신과 나 자신의 불신에 대해 생각했다. 그리고 기적을 기대하는 신앙을 방해하는 두 가지 요소를 알게 되었다.

1. 현대의 편리함에 잠식된 신앙

그리스도인은 종종 기적을 포함한 초자연적 현상이 서구보다 남반구에 더 많다고 주장한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서구가 질병치유에 관해서는 사실상 현대 의학에 다 양보했기 때문이다. 내가 다니는 성경 학교 교수 중 한 사람의 말처럼 말이다. “두통이 있으면 나는 기도하는 대신 타이레놀부터 찾는다.” 물론, 하나님의 치유와 외과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데리고 온 병든 무리를 고치셨다(마 4:23-24; 14:34-36; 15:30; 21:14). 1세기는 궁핍한 시대였다. 보통 사람이라면 음식에 소득의 70~90퍼센트를 사용했다. 사회 안전망이나 근로자 보상은 전무했다. 일하다가 다치면 가족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돈을 벌 방법을 찾아야 했다. 돈을 벌지 못해 빚을 졌다가 갚지 못하면 가족 중 누군가를 노예로 넘겨야 했다. 게다가 항생제와 같은 현대 의학이 전무했고 수많은 사람이 일찍 죽었다. 고대 로마의 평균 수명은 35세 미만이었다.

예수님은 주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시고자(요 5:36) 또는 자신의 신성을 증명하시고자(마 9:6) 기적을 행하셨다. 하지만 그는 또한 평범한 사람들이 하나님 밖에는 도움을 구할 곳이 없을 때면 자신의 무한한 지혜를 통해서 기적을 행하셨다.

2. 지나치게 이성적이 되어버린 신앙

그리스도를 믿기 전까지 나는 세속적인 지식인이었다. 나의 지성은 여전히 죄에 속박되어 있었다. 나 또한 서구의 계몽주의 이후 사회에서 성인이 되면서 일정 수준의 문화적 프로그래밍과 싸워야만 했다. 불행히도 나는 바로 그 세계관을 예

또 다른 포럼에서 한 기독교인 유학자는 지적 설계자가 창조한 질서 있는 우주라는 개념이 과학적 방법에 중요한 기초를 마련했다고 주장했다. 다른 아나나 과학에서 중요한 이해 가능성과 지적 설계가 개념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가르침은 내게 해방감을 주었다. 과학적 경험주의는 사실과 허구를 걸러내는 좋은 방법이지만, 그 자체가 진실은 아니다. 우리는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을 계몽주의 회의주의에 종속시킬 필요가 없다. 무신론 자조차도 진실 주장을 그런 기준으로 요구하지는 않는다. 그 점을 염두에 두고, 나는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동시에 더 쉽게 기적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은 과학과 전쟁을 벌이고 있지 않다. 하나님은 과학의 창조자이시다.

내가 배운 것

학교 식당에서 기도 사건이 있는 이후로 나는 나름 긴 여정을 겪었다. 그리고 마침내 휠체어에서 벗어났다. 하나님이 물리 치료, 침술, 그리고 효과를 보장하는 약으로 나를 축복하셨기 때문이다. 언젠가는 내 다리가 완전하게 될 거라고 믿는다.

나는 긴장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다. 하나님이 항상 치유해 주시



“시각장애는 선교 도구” 어르신 믿음의 눈을 열다

낙도선교회 지역 선교 활동 참여

시각장애인도 선교에 참여할 수 있을까? 장애가 오히려 ‘선교 달란트’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신학생 이야기가 화제다. 종종 시각장애가 있는 남기원(20)씨는 낙도선교회(대표 박원희 목사)를 통해 지난 12일부터 엿새 동안 전남 완도와 진도 일대 교회로 선교 활동을 다녀왔다. 남씨와 함께 낙도선교회에 참여한 100여명 신학생과 교회사역팀은 10개 섬에 있는 11개 교회로 흩어져 마을잔치와 전도, 이미용 선교 등을 진행하며 주민에게 복음을 전했다. 다양한 사역 중 남씨는 각 가정을 차례대로 방문해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는 ‘영적 팀장’ 역할을 맡았다.

남씨가 방문했던 여러 가정 중 한 곳에서 글을 읽지 못하는 고령의 할머니도 만났다. 할머니는 남씨에게 “나는 글을 몰라서 성경도 못 읽고 찬송가도 따라 부르지 못한다. 교회 나가봐야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털어놨다. 할머니의 반박된 거절에도 남씨는 교회 출석 권유를 포기하지 않았다. 남씨는 “할머니께 저도 앞을 못 봐서 글자를 못 본다. 그런데 글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해도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다고 전하며 전도를 이어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시각장애인이지만 하나님을 전도하는 일에 장애는 걸림돌이 될 수 없단 걸 이번엔 깨달았다”며 “오히려 이번 선교를



평화통일 염원 ‘기도의 집’ 세워진다

기감, 강화군 교동도에 건축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감독회장 김정석 목사)가 북한과 가까운 인천 강화군 교동도에 ‘평화통일 기도의 집’(조감도)을 건립한다. 이곳은 남북 분단의 아픔을 넘어 평화와 통일을 기원하는 상징적 공간으로, 실향민은 물론 통일을 염원하는 모든 이가 함께할 수 있도록 조성될 예정이다. 기도의 집은 지역의 평화통일 사업과 연계해 순

례 코스로 활용될 계획이다.

기도의 집 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김의중 목사)는 지난 13일 1차 회의를 열고 기도의 집 명칭을 ‘개신교 선교 140주년 기념 평화통일 기도의 집’으로 확정했다. 완공 목표 시점은 오는 8월 15일이다. 기도의 집 설립은 2023년 교동지역 기감 소속 12개 교회가 북한이 보이는 방향대에서 평화통일 기도회를

개최한 것을 계기로 추진됐다. 이후 기감 본부 사회평신도국(총무 문영배 장로)의 주도 아래, 교단 차원의 평화통일 기도교회 건립으로 사업 규모가 확장됐다.

문영배 총무는 지난 16일 “80년 남북 분단의 세월을 우리는 아파하며 살아왔다”며 “기독교인은 평화통일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지 못한 죄를 회개하고 이제 분단의 갈등과 위기를 극복해 후손에게 복된 국가를 물려줘야 한다”고 설립 취지를 소개했다.

김의중 추진위원장은 “북한이 가장 잘 보이는 교동도에 기독교인이 통일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을 세우는 것은 절경지역 목회자들의 오랜 소망”이라며 “이번 건립을 통해 남북의 평화를 기도하는 이들의 발걸음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교단과 교파를 넘어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의사의 악성 종양 제거 수술 모두 다 하나님의 자비로운 개입의 표현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치유할 수 있다. 현대 의학은 단순한 신체의 자가 치유 과정을 지원하며, 하나님은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이를 유지하신다(히 1:3).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자. 과연 기도의 뜨거운 열의가 가슴속이나 기술 발전의 속도에 따라서 결정되어야 할까? 기도 외에 아무런 대책이 없다면, 정말 기적을 더 간절히 기대하고 기다릴까?

성경은 이 질문에 대답을 준다.

수님과의 관계에까지 가지고 들어왔다. 식당 직원과 같이 기도한 후에 나는 내 의심이 얼마나 현대 문화의 영향 때문인지가 궁금했다.

팀 켈러는 팀 켈러의 답이 되는 기독교에서 “고유의 입장이 없는 관점”은 있을 수 없다고 지적한다. 과학적 세계관에도 기독교와 마찬가지로 자체적인 기적(즉, 비뻔)과 신앙적 가정(즉, 비뻔)이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과학적 세계관의 핵심 교리는 모든 현상에는 자연적 원인이 있어야 한다는 가정이고, 따라서 기적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다.

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나는 치유를 위해 자신 있게 기도할 수 있다. 치유하거나 치유하지 않는 건 하나님 고유의 특권이라는 사실을 나는 온전히 받아들인다. 어느 쪽이든 그는 여전히 주권자이고 선하시다. 그럼에도 나는 그의 은혜로운 치유를 위해 간절히 기도할 것이다. 그리고 제자들이 주님께 한 말을 되뇌는 것이다. “우리의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눅 17:5).

by Ben LeBlanc, TGC



mission

선교의 창 (253)

송종록 목사
(크로스선교전략 연구소)



선교사의 영성 관리

2025 을사년(乙巳年) 새해가 밝았다. 금년은 우리 각자에게 어떤 날들이 될까? 국내 외적 상황을 볼 때 그 어느 때 못지않게 많은 도전들이 올 것이다. 거친 세상에서 인생은 누구나 망망대해의 일엽편주(一葉片舟)가 아니던가? 많은 사람 중에서도 선교사는 더욱 그러하다. 자기 한 몸도 가누기 어려운 격랑(激浪)속에서 어떻게 세계선교의 과업을 준행한단 말인가? 답은 간단하

선교사 생활의 일반적인 양태

선교사들은 그 삶의 방식이 자유롭다. 마치 농부와 비슷하다. 간섭하는 사람도 없다. 잡자리에서 일어나고 싶으면 일어나고 눕고 싶으면 눕는다. 딱히 정해진 틀도 없다. 바람 따라 기후 따라 살아간다. 자기가 대장이기에 산출 목표에 대한 압박감도 없다. 이로서 농부는 그 삶의 태도와 열정에 따라 천차만별의 결과를 낳는

출되어 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벧전 5:8). 이렇게 격렬한 영적 전쟁터에서 선교사가 어떻게 하면 주눅 들지 않고 살아남아 사역적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영성 관리에 대적되는 요소

선교사로 하여금 주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주된 요인

어떻게 생수를 담을 수 있단 말인가? 둘째의 요인은 “스트레스”이다. 의학의 연구 발표에 의하면 인간의 정신 영역뿐만 아니라 신체 분야에 있어서도 스트레스는 모든 질병 요인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한다. 삶이 복잡해질수록 현대인은 자신에게 맞닥뜨려져 있는 스트레스와의 전쟁을 하고 있다. 왜 스트레스가 많은가? 이는 주로 탐욕에서 기인한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는다. 셋째의 요인은 물질문명이다. 본시 인간은 배가 부르고 등이 따뜻하면 하나님을 멀리하기 마련이다. 현대인은 유희, 여행, 취미 생활에 아낌없이 시간과 물질을 투자한다. 인생락(樂)을 위해 내 것을 소비하는 데 누가 시비하라! 모든 것이 가하나 지나치면 아니함만 못하다. 진정 주님을 따르기 원한다면 절제된 삶이 요구된다.

영성에 관한 명언들

영성이란 무엇인가? 이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기란 쉽지 않다. 그렇다면 영성에 관한 영적 거장들의 표현은 어떠한가? “하나님과의 완전한 연합

리하고, 지속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선교에 참여하는 것이 영적으로 성숙하는 길임을 보여주었다. 이렇듯 성경 적인 영성은 영적, 지적, 도덕적, 행동적, 감정적 요소 모두를 포함한다. 즉, 통합적 영성으로의 포괄적 개념을 표현하고 있다.

영성 관리 방안

선교사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 받은 사명자다. 사명자의 첫째 본분은 무엇인가? 사역이 아니다. 그것은 말씀을 경청하는 일이다.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 코람데오(Coram Deo) 사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 그 시간은 이른 아침이 좋다. 적어도 아침 식사를 하기 전에는 다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영성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나아가 월 1회 정도는 홀로 기도원 같은 한적한 곳에 갈 필요가 있다. 선교사가 하늘 음성을 소홀히 한 채 동네방네 설치고 다닌다면 이는 가소로운 것이다. 둘째는 기도하는 생활이다. 다니엘은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하나의 의식(意識 또는 儀式)에 그칠 뿐이며, 이럴 경우 오히려 바리새인들처럼 위선과 독선이 되기 쉽다. 건강한 영성은 행동을 유발한다.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기 때문이다(약2:22). 생각해보라. 모세가 시내 산 언약을 받았음에도 행동으로 표출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의대생이 해부학에 대해 강의를 들었다면 직접 실습을 해 봐야 산지식이 된다.

맺음말

선교사는 왜 자기 영성관리에 사활을 걸어야 하나? 자아가 탈진(Burn-Out) 되지 않고 사역에서 부흥을 가져오기 위해서이다. 영력이 없는 사역자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다. 세상 문제들에 놀리어 그 마음에 자유와 평안이 없다. 사역은커녕 자기 자신도 지탱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선교사는 사역에 앞서 매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영적 해갈을 위해 말씀을 사모해야 한다. 여기서 “사모한다”의 뜻은 동물의 새끼가 어미젖을 먹지 아니하면 죽기에 온 힘을 다해 투쟁한다

인생은 망망대해의 일엽편주(一葉片舟)와 같다.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과 같이 요동치 않는다.
선교사는 일보다 하나님 앞에서 독대하는 시간을 중시해야 한다.

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슥4:6). 그렇다. 우리의 의지나 열심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사역하겠다는 것은 교만의 극치이다. 그러므로 선교사는 어깨에 힘을 빼야 한다. 늘 심령을 비우고 신령한 말씀으로 채우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 영성 관리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사역의 흥망을 좌우하는 첩경이기 때문이다.

다. 선교사들도 그러하다. 더군다나 저들은 이역만리(異域萬里) 하늘 아래 덩그렁 떨어져 있다. 외적 환경이 녹록지 않다. 삶이 외롭다. 변칙적이다.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하고 추진하기에 천상천하 유일독존(天上天下 唯我獨尊)이 되기 쉽다. 이밖에 선교사는 고독한 환경, 재정적 결핍, 크고 작은 질병, 가정 파괴, 여가의 부족, 사역적 부담, 동료 선교사들과 불화, 현지인들과 갈등, 언어장벽과 문화충격, 수시로 방문하는 손님맞이 등으로 인하여 고국에서 보다 삶의 중압감이 10배는 된다. 무엇보다 선교사는 사탄의 공격에 노

은 첫째 SNS를 통한 세상 정보이다. 21세기 현대인들은 매일 실시간 세계의 소식을 접하고 있다. 그것들 대부분은 인간들의 죄로 말미암아 생긴 자극적인 뉴스이다. 정치, 스포츠, 영화나 드라마, 각종 사건 사고 등 인간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소식들이 홍수를 이룬다. 현대인들은 세상 돌아가는 일에 많이 중독되어 있다. 저들은 눈만 뜨면 핸드폰이나 랩탑을 켜 놓고 산다. 선교사들은 예외인가? 우리는 익히 알아야 한다. 인간이 세상 것에 취할수록 영혼은 훼손되며 말씀이 역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오물로 가득 차 있는 컵에

이다”(토마스 아 켐피스). “하나님을 향한 불타는 열망이다”(제임스 패커). “영적 훈련을 통해 내적인 영적 변화가 일어나는 은혜이다”(리차드 포스터).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열정이다”(달라스 윌라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아 변화되고자 하는 마음이다”(존 오트버그).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살려는 열망이다”(릭 위렌). 사실 성경에는 ‘영성’이란 단어가 나오지 않는다. 오히려 ‘영적 성숙’의 개념이 더 정확할 것이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참된 회심과 심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성을 처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단 6:10). 그는 매일 규칙적이며 생명을 건 기도를 했다. 다윗도 인생의 고난과 역경 가운데 기도생활을 했다.“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시 55:17). 이런 기도 생활 외에 연말이나 고난 주간, 기타 중요한 일이 있을 때에 금식기도도 요구된다. 셋째는 행동하는 신앙이다. 온전한 영성은 깨달음에 그치지 아니하고 행동으로 옮겨져야 한다. 이것이 바로 “영성의 육화”이다. 생활화되지 않은 영성은

는 것이다. 이는 선택이 아닌 절대적 요소이다. 선교사는 거룩한 나그네요 이방 영혼들을 책임지는 하나님의 나팔수이다. 이에 저들 소명자들은 어떤 조건과 상황 가운데서도 그 심령이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가듯 비상해야 한다. 리처드 니버(Richard Niebuhr)의 “평온을 구하는 기도”를 묵상해보자 “하나님,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는 평온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바꾸는 용기를, 그리고 이 두 가지를 구별하여 행동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Jrsong007@hanmail.net

One Story

21세기
말씀의 삶

홍요셉 선교사 (P국, 중동선교전략가)

37강 요나단, 다윗 (사무엘상 13,14, 16-20장)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왕으로 계심에도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못하였고 마침내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서 사람왕 사울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울의 시작부터 범죄로 말미암아 마침내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삼상 15:26)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울에서 시선을 돌려 다윗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사울의 첫 아들이자 다윗의 동역자였던 요나단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요나단과 다윗의 나이 차이

먼저 요나단의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요나단과 다윗의 나이 차이’를 잠시 보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요나단과 다윗을 ‘친구’라고 알고 있는데 친구도 맞지만 친구보다는 ‘믿음의 동역자’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사울은 40살에 왕이

되어(삼상 13:1,2) 40년을 다스렸고(왕 13:21),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에 요나단은 이미 군대 장관으로 1천명을 거느리고 있었으니 적어도 20살은 되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죽자 30세에 왕이 되는데(삼하 5:4,5) 사울이 죽을 때의 나이가 80, 요나단은 60정도였을 것입니다. 즉, 다윗과 요나단은 30년 정도의 나이 차이가 있습니다. 왜 요나단과 다윗의 나이 차이로 요나단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면 요나단이 다윗을 향한 사랑, 그 마음이 단순한 동연배 친구의 우정 그 이상이었다는 것을 말하려는 것입니다.

여호와와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 상황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 명이고 백성은 해변의

모래 같이 많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백성들은 요단을 건너 갔고 길르앗 땅으로 갔고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었지만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고 있었습니다(삼상 13:5-7).

대부분의 백성이 도망을 치고 사울이 600명 정도의 백성과 있을 그때에 요나단은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고(삼상 13:3) 그의 무기든 소년과 함께 블레셋을 공격합니다(삼상 14:6-15). 이때 요나단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삼상 14:6)고 선포 합니다. 결국 전쟁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삼상 14:16-23). 또한 요나단은 사울의 어리석은 맹세로 말미암아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지만 백성은 그를 보호하며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다’(삼상 14:45)고 합니다. 이와같이 요나단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군인으로서의 용기도 갖춘 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요나단이 후에 다윗을 앞세우고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 것이 힘과 용기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부터 요나단의 이야기와 같이 다윗의 이야기에 함께 등장할 할 것입니다.

‘부르심 이전’의 다윗

이제부터 다윗 이야기입니다. 구약 역사서에서 사무엘, 사울과 요나단 그리고 다윗의 이야기는 사사 시대의 기록과 같이 한 사람이 죽고 다음 사람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교차 중복’되고 있습니다. 이미 사무엘이 중심이 되어 선지자로 활동하던 때는 지났지만 아직 선지자로 살아있고 사울이 왕으로서 하나님께 버림받았지만 아직도 왕으

로서 살아있으며 요나단도 아직 살아있을 때에 다윗이 등장하여 다윗 중심으로 사무엘과 사울 그리고 요나단이 보조하는 역할로 이야기가 전개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사무엘이나 모세와 같이 다윗의 부르심 이전의 모습을 구체적으로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요셉과 같이 다윗의 어린 시절을 추론해볼 수 있는데 다윗은 유다(마 1:3-6) 가문으로 보아스와 롯의 자손으로(룻 4:21,22) 이새의 8번째 아들(삼상 16:10, 17:12) 또는 7번째 아들이었습니다(대상 2:13-15). 일반적으로 사무엘상의 기록과 역대상 기록 사이에 다윗의 형 중 한명이 죽어서 역대기에서는 다윗이 8번째에서 7번째로 기록된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 방문해서 이새의 아들들을 청했을 때(삼상 16:1-10)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아버지 또는 형들이 그 시간에 다윗을 양치는 곳으로 보낸 것입니다. 사무엘이 제사를 위해 온 자리에 다윗을 참석 시키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후에 다윗의 시편에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와 나를 영접하시리이다’(시 27:10)라고 하였

습니다. 또한 다윗은 요셉과 같이 막내임에도 후에 아버지 이새가 전쟁터에 있는 형 3명을 위해 음식을 보내어 다윗이 전쟁터에 가서 형들을 만났게 됩니다. 그런데 형들이 반가워하기보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에게 노를 발하여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삼상 17:28)라며 심하게 책망합니다. 이런 배경으로 보아 다윗은 성장기에 부모와 형제들로부터 그 어떤 어려움을 당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다윗은 어려서부터 막내임에도 다른 형들보다 뛰어난 부분이 있었기 때문으로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이제 나오는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사울 앞에 섰을 때에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키л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삼상 17:34,35)라고 하여 매우 용맹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hfamilyfa@gmail.com

매일가정에배

월 은혜를 누리는 삶 (눅 11:2-4) 찬 317장

하나님의 은혜를 누림으로 그 영광이 나타나고 나타나신 하나님의 은혜로 다스림이 나타나고 구원하심이 나타나게 하신다. 하나님의 실상이 나타나게 하는 믿음으로 누리는 것이다. 믿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의 실상을 보고 누리라. 하나님께서 나타나게 하는 누림의 삶을 사는 것이다. 죄에서 나타나는 사망의 생각을 누리지 말라. 이웃의 허물을 사하여 주라. 주인 노릇 하지 말라. 주님 앞에서 섬기는 자로 살라. 죄의

화 생명의 빛 (눅 11:33-36) 찬 289장

자신에게 빛이신 주님이 임하심의 실상을 알고 보고 누리라. 생명의 빛이 나타나실 실상을 누리라. 생명의 빛이 나타나는 것이다. 믿음으로 보지 못하여 어둠에 있지 않게 하라. 항상 영적 실상의 빛을 보고 누리라. 성령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거룩한 빛이 나타나실 누리라. 본래 어둠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빛의 사람으로 만드신 것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

수 거룩한 성전으로 지키라 (눅 11:38-41) 찬 436장

구원받은 자들은 마땅히 성전인 나의 마음을 거룩하게 지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죄의 생각을 품으면 마음이 부정해진다. 수시로 나타나는 사망의 생각을 품지 않도록 항상 깨어 지켜야 한다.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겉은 거룩한 모양을 갖추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무덤과 같이 자신을 죽이는 이웃을 죽이는 사망의 생각이 살아있는 창고다. 마음에서 들리는 소리가 사망의 소리인지 아니면 생명

목 무덤과 같은 자 (눅 11:43-46) 찬 183장

평토장한 무덤과 같은 모습으로 사망이 가득한 자들이다. 겉으로는 경건으로 포장한 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사망 안에서 사망에 속하여 사망을 누리고 사는 자들이다. 영원한 형벌을 받을 자들이다. 여전히 무덤에서 사는 자들이다. 무덤인 줄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자랑스러운 집으로 알고 살고 있다. 사망의 것을 누리지 말라. 추한 것을 누리지

금 하나님의 소유된 자 (눅 12:6-7) 찬 289장

만물의 주인에게는 주인의 소유된 것들은 모두 다 소중한 것이다. 참새까지도 창조주가 되시는 주인에게 귀한 것이다. 심지어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는 특별히 하나님에게 영원히 소중한 자다. 주인의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다.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자요. 하나님

토 생명 안에서 누리는 삶 (눅 12:8-12) 찬 370장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을 알고 누리라.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서 산다. 만물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것을 알고 살아야 한다. 사람 앞에서 주인을 시인하고 부인하지 말라. 주인을 잊고 살지 말라. 어둠에서 살지 말라. 주인 앞에서 살고 주인 안에서 사는 것이어야 한다. 하나님의 천지에 충만하심 안에서 살라. 주님을 부인하지 말고, 알고 살라. 주님을 높이며 섬

김상덕 목사 (복음장로교회 원로)

sangdkim@yahoo.com

생각에 매여 있지 말라. 주인으로 부터 항상 사랑을 받으며 사는 자로서 주인에게 그 은혜에 보답함이 이웃의 허물을 사하여 주는 것이다. 사하여 줄 때 자신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인의 이름으로 사하여 주라.

주님의 마음에 있는 사람 안에서 누리는 것이다. 주님의 생명에서 나타나는 죄 사람을 누리는 것이다.

이라고 하셨다. 성령이 임하심으로 인하여 생명의 빛이 발하는 자로 세상에 두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두신 이 빛이 발하는 것을 믿음으로 깨어 있지 않음을 통하여 덮어 두는 상황에 있지 않게 하여야 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빛의 옷을 입혀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에 불로 임하여 불로 꺼지지 않고 나무도 타지 않는 불로 그 빛이 나타나게 하셨다.

의 소리인지 항상 살피라.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생명의 소리가 나타나는 거룩한 마음의 상태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생명의 향기를 풍어내는 고귀한 삶을 살아야 한다. 악한 냄새를 풍어내는 추한 삶을 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셨다. 자신을 말씀의 거울 앞에서 열심히 확인하여 보라.

말라. 마귀의 종과 같이 살지 말라. 추한 것을 자랑하고 사랑하며 누리고 하지 말라. 영적으로 자신의 상태를 알아야 한다. 영적 소경으로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망의 종으로 살면서 자신은 거룩한 자라고 생각한다. 사망에 속한 자가 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에 속한 자가 되자.

의 영광이 나타나는 자요 하나님의 지체로서 영원한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자로 새로이 지음을 받은 자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는 자인 것이다. 하나님에게 소중한 자다. 세상의 두려움은 주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육신에서 오는 것이다. 받아들이지 말고 누리지 말아야 한다.

기며 살라. 주님을 모독하지 말라. 부인하지 말라. 주님 앞에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것이다. 주님 안에서 할 말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주님을 보여주시는 것이다. 성령이 생명이 되어 계신다. 생명 안에서 누림으로 죽음에서 자유하라. 하나님의 생명에는 죄가 없고 사망이 없다. 그 생명이 부활하신 생명 안에서 누리고 살라.



목회와 선교를 위한 인공지능 (9)



제임스 구 목사
(그레이스비전스쿨 대표)

목회와 선교를 위한 인공지능 AI(Artificial Intelligence)도구 활용

Generative AI (생성형 AI) 도구들에 대한 종류와 목회와 선교적 활용 (8편)

9. Image to Video (ITV) AI 기술: 정적인 이미지를 생동감 있는 콘텐츠로

최근 기술 발전은 우리가 이미지를 활용하는 방식에 혁신을 가져왔습니다. 그중 하나가 정적인 이미지를 동적인 영상으로 변환하는 Image to Video(ITV)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정지된 사진, 그림 등 이미지를 기반으로 음악, 텍스트, 애니메이션 등의 요소를 추가하여 매력적이고 역동적인 비디오 콘텐츠를 자동으로 제작합니다.



텐츠 제작에 적합합니다.

ITV 기술의 장점과 대표 도구

ITV의 가장 큰 장점은 작업의 자동화입니다. 이미지에 텍스트, 음악, 애니메이션을 추가하고, 다양한 스타일로 영상을 생성함으로써 시간과 노력을 크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도구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Pictory: 간단한 이미지 기반 비디오 제작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기 쉽고 기본적인 변환 기능을 제공합니다.

Animoto: 업로드한 이미지나 영상 클립을 바탕으로 다양한 스타일의 비디오를 자동 생성하며 편집 옵션도 제공합니다.

Magisto: AI 기반의 도구로, 이미지와 영상 클립을 자동으로 연결하여 세련된 영상을 제작합니다.

Adobe Express: 직관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다양한 템플릿 제공하며, 간단한 드래그앤드롭 방식으로 초보자도 쉽게 사용 가능합니다.

Canva Video Maker: 이미지와 동영상을 함께 편집 가능하며 다양한 무료 및 유료 템플릿이 제공되며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최적화된 비디오 크기와 형식을 지원합니다.

Lumen5: 텍스트를 기반으로 이미지와 영상을 결합하여 AI가 자동으로 텍스트와 관련된 이미지를 추천해 줌으로 콘텐츠 마케팅, 뉴스 요약 비디오에 적합합니다.

InVideo: 약 5,000개 이상의 템플릿 제공하여 이미지, 텍스트, 비디오 클립을 결합하여 전문적인 영상 제작을 지원해주며 협업 기능 지원으로 팀 프로젝트 제작에 적합합니다.

dr.jameskoo@yahoo.com

프레젠테이션과 슬라이드쇼 제작의 혁신

ITV 기술은 교회, 기업, 학교 등에서 프레젠테이션 및 프로젝트 슬라이드쇼 제작을 혁신적으로 단순화합니다. 수동으로 하나씩 제작할 필요 없이 여러 장의 이미지를 자동으로 연결해 텍스트와 애니메이션 효과가 포함된 동영상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는 동시에 매끄럽고 전문적인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추억을 기록하는 이벤트 비디오 제작

ITV는 다양한 이벤트와 행사의 추억을 기록하는 데도 탁월합니다. 예를 들어, 선교 여행, 결혼식, 졸업식, 교회 행사 등에서 촬영한 수백 장의 사진을 기반으로 자동 비디오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특별한 순간을 동영상으로 간직하고, 이를 가족, 친구, 교인들과 공유하는 것이 훨씬 간편해집니다.

스토리텔링과 애니메이션 제작

ITV 기술은 단순히 사진을 연결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스토리텔링과 애니메이션 영상 제작에도 활용됩니다. 예를 들어, 일러스트나 만화를 이미지로 사용해 각 장면을 이어주는 애니메이션 스타일의 동영상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교육, 동화, 마케팅 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며, 정적인 이미지를 감각적인 시각 콘텐츠로 변환시킵니다.

마케팅과 홍보를 위한 동영상 제작

ITV 기술은 제품 사진이나 로고를 활용한 광고 제작에도 유용합니다. 기업은 온라인 쇼핑몰 제품 사진을 활용해 자동으로 짧고 매력적인 광고 영상을 제작할 수 있으며, 교회나 선교 단체 역시 로고나 행사 사진을 기반으로 홍보 영상을 쉽게 제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영상은 소셜 미디어에서 큰 효과를 발휘하며, 특히 유튜브 Shorts, 인스타그램 Reels와 같은 짧은 영상 콘



"사람은 가도 사랑은 남습니다"

가슴으로 쓴 이야기는
세월이 가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한 생애를 살아온
당신이 남긴 사랑의 이야기들

기억은 추억이 되어
더욱 소중합니다

최고의 예를 드리는
하늘 가족, 중앙 장의사

머리카락 한올까지
마지막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 정성속에 함께 보낸 36년
Since 1988, 최초의 한인 공인장례사

당신의 이야기
....사랑의 꽃이 됩니다

모든지점 - 대형 파랑장 원비

Central Funeral Home: BongHo Ha F.D. NJ LIC 4569 | Gina Chong F.D. NJ LIC. 4504 | John Chong F.D. NJ LIC 5079

NY : 샌포드 예비부 162-14 Sanford Ave., Flushing, NY NJ : 위지필드 809 Broad Ave, Ridgefield, NJ NJ : 잉글우드 129 Engle St, Englewood, NJ

장례사전계획 | 장례식 코디네이터 | 성직자 초빙 | 묘지구입 상담 | 운구 한국소환 | 이장 | 기타 장례의 모든 것

뉴욕 | 718. 353.2424 뉴저지 | 201.945. 2009

LA 대형 산불을 보며...

LA 화재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영적 교훈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자”

신원규 목사
(좋은마을 교회)

2025년 들어 전 세계 곳곳에서 재난과 위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 LA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는 단순히 자연재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영적 교훈을 주는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재난 속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분의 메시지에 귀 기울이는 것이 우리의 신앙과 삶에 어떤 의미를 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불을 하나님의 심판과 거룩함의 상징으로 자주 묘사합니다.

노아 시대의 홍수는 물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불로 심판이 임했음을 보여줍니다(창 19:24). 이는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을 드러냅니다. 불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와 성결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경고의 메시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세속화와 타락이 만연한 사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함을 상기시킵니다. 재난은 단순히 심판의 의미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

을 듣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화재와 같은 사건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삶과 신앙을 돌아보게 합니다. 엘리야가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던 것처럼(왕상 19:12), 우리도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재난은 단순히 두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와 회개로 반응해야 하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대하 7:14).

화재와 같은 재난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의 실천을 요구하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야고보서 2:17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말씀합니다.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돕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본분입니다. LA 화재로 피해를 입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실천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단순히 예배하는 공동체를 넘어, 재난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사랑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신교편지

캄보디아

1. 성탄 축하 학교발표회

작년까지는 학교 졸업식과 성탄 축하 발표회를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졸업식이 10월로 옮겨지면서 성탄절 발표회를 12월 22일 주일 아침에 진행하였습니다.

캄보디아는 성탄절 날인 25일이 휴무일이 아니어서 학부모들이 많이 참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일이어서 수업이 없고, 또 학부모들의 스케줄로 인해서 전체 학생이 참여하지는 못했으나 180여 명의 학생과 200여 명의 학부모가 참석하여 그레이스 채플이 꽉 찼습니다.

각 반별로 한 달 이상 준비한 영어 읽기, 찬양, 댄스, 성탄 캐롤, 청소년들의 창작소켓, 그리고 태권도부의 발표가 진행되는 동안, 학부모들이 사진과 동영상 촬영에 열심인 모습을 보며 질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학교에 대한 뿌듯함과 선교의 지경이 크게 넓혀지고 있음에 감사하였습니다. 행사 전에 천정의 조명등과 암막 커튼을 구비하였는데, 행사를 진행하는 환경과 음향 그리고 조명과 여러 기기를 사용하여 최신의 공연장을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선사할 수 있어서 자부심도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학부모들

입장에서 앞서가고 발전해 가는 학교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2. 청소년 친구초청 성탄발표회

중고등부 청소년 학생들과 약 두 달 동안 성탄을 축하하고 친구들을 전도하기 위하여 성탄발표회를 준비하였습니다. 올해는 특히 기획단계에서부터 학생 자체 예배팀이 함께 준비하게 하였고, 기존의 교사들 중심의 행사를 벗어나 학생들이 사회자, 행사 진행, 찬양 인도 등 모든 역할들을 직접 담당하게 하였습니다. 마치 한국의 8-90년대 교회 중고등부 ‘시와 찬미의 밤’, ‘문학의 밤’처럼, 학생들이 직접 준비하고 실행하여 경험을 쌓고 사역훈련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기대이상이었습니다. ‘각 역할들을 잘 해 낼 수 있을까?’ 하고 내심 걱정도 하였으나, 몇 차례의 리허설 이후 발표회 당일에는 깜짝 놀랄 정도로 각자의 역할들을 잘 해주어 우리 청소년들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크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친구를 초대하고 데려오는 숫자도 내심으로는 ‘100 명이나 150 명 정도를 데리고 올 수 있을까?’ 했는데, 행사당일 250 명이 넘는 자신들의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그레이스 채플이 비좁을 정도로 꽉차는 것에 또 놀랐습니다.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봉사과 사역에도 발전하는 청소년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3. 건물 하자 보수작업

작년 7 월 새건물 완공 이후에 건물을 사용해 오면서 몇가지 하자가 발견되었습니다.

큰 돌풍과 큰 비가 올 때 지붕에 물이 새어 스며드는 문제, 완공 전 1 층 바닥타일에 작업자들의 부주의로 인한 스크래치 문제, 배관 파이프 노출로 인해서 손이 댈 정도로 물이 뜨겁게 나오는 문제, 계단의 자동 센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문제 등이 계속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12 월 30 일부터 1 월 4 일까지 학교 Term Break 기간에 하자보수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지붕은 이미 두 차례 누수 공사를 했음에도 다시 누수되어 방수재를 넓게 덧대는 작업과 시멘트와 철제덮개를 대어 보완하였습니다. 아마 올 5월에 시작되는 우기에 큰비가 올 때 제대로 점검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조경작업

지난 10월 말에 시작한 조경공사가 아래와 같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건물 뒤편의 운동장 잔디 작업은 우기가 시작되는 4, 5월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조경작업 이후에 학교건물이 얼마나 깨끗하게 단장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흙먼지가 직접 건물에 적게 들어오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학생들이 주차할 수 있고(우기에는 비를 피하고) 꽃과 나무가 예쁜 화단이 학교를 화사하게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이상 위와 같이 캄보디아 선교사역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게 지원과 기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담임목사님과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퀸즈장로교회의 선교사역 가운데 캄보디아 벤엘 센터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도록 2025년에도 더욱 책임을 감당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일훈 박수영 선교사 가정 드림

▲ 국가명
미얀마

▲ 종족명
라타 종족

▲ 인구
약 9,550명

▲ 종교
민속 종교 70%, 불교 25%, 복음화율 5%

▲ 복음매체
성경번역 요청됨, 복음 녹음 있음

▲ 종족 프로파일
주 남부 산악 지역의 30여 개 마을에 살며 주로 농사를 짓는다. 대부분 정령숭배를 하거나 불교 신자이다. 소수의 가톨릭 신자도 있다. 다른 언어와 확연히 구별되는 이들의 모어인 라타어는 거의 모든 세대가 활발하게 사용한다. 젊은 세대는 미얀마어도 사용한다.

▲ 기도제목
1. 라타어 성경 번역에 대한 시급한 필요가 알려지고 사역이 시작되도록
2. 라타 종족을 위한 전도자를 보내 주셔서 정령숭배와 불교에 빠져있는 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도록

〈GBT 성경번역선교회〉

글로벌 인재 발굴과 양성을 실현하는

Midwest University

Founded in 1986www.midwest.edu

2025년 봄학기 신, 편입생 학생모집

학점,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국제항공대학(원) 경영대학(원) 교육대학(원)
리더십대학원 상담심리대학원 신학대학(원)
음악,문화예술대학원

1. 미국 유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F-1 Visa (SEVISI-20) 또는 J-1 Visa (DS-2019)
2. 직장과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세계 어디서든지 Online 혹은 집중강의로 학점취득 가능
3. 영어, 한국어 언어에 구애없이 학점취득 가능
4. 타대학에서 받은 학점 최대한 인정하여 편입가능

자세한 사항은 web site 를 방문하거나 이메일 혹은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학문의 : 전화 (636) 327 – 4645, 이메일 usa@midwest.edu

